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9호
2026년 10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발행인: 황호숙 편집장: 신복례



남가주 동창회가 기부한 베네수엘라 성금을 받은 '국경없는의사회'가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가운데가 양수진 회장.



로봇캠프를 마치고 참가한 학생들과 행사를 마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뒷줄 가운데 시니어가 한홍택 박사.

남가주 서울대 동문들, 나눔과 봉사의 선봉에 서다

자폐 어린이 돕기 음악회부터 로봇캠프·재해 구호 모금까지

남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양수진 간호80)가 남가주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의 선봉에 서고 있다. 동문끼리 만나 친목을 다지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지원하고 미래 세대에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며 재해를 겪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올해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는 지난 선배 회장들의 나눔 사업에 이어, 가능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창회를 기치로 내걸고, 나눔 사업이 구체화하면서 시간과 전문성, 후원금을 보태겠다는 동문이 늘고 있다. 동문회의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끌 기회가 열린 것이다.

올해 가장 주목을 끈 사업은 바로 구호 사업이다.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됐던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지진 이재민 돕기 캠페인이다. 지진으로 심한 재해를 겪은 이땅의 먼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전달했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베네수엘라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긴급 구호 성금을 모금했다. 동창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동문 36명이 참여해 총 14,000 달러를 모았다. 동창회는 성금이 유니세프를 통해 베네수엘라로 도움이 전해지길 원했으나 10만불 이상 만이 지역 지정 후원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신뢰할수 있는 기관 중 '국경없는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를 통해 베네수엘라 지정 피해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에게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가주 동문들의 남다른 선한 마음이 모여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남가주 동창회 역사에 전에 없던 귀한 성과이기도 하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올해의 나눔과 봉

사 활동을 연초부터 일찍감치 시작했다. 총동창회는 지난 1월 4일 남가주 UC버바인 바클레이 극장에서 자폐 스펙트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신년 나눔 음악회'를 열었다. 금년새 동문이 지휘한 공연의 수익금은 발달 장애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한미특수교육센터를 위해 마련됐다. 박용필 동문(문리대 66)에 따르면 동창회가 센터에 전달한 금액은 1만 500달러다. 객석에서 음악을 즐긴 시간이 지역사회 어린이와 가족을 돕는 후원으로 이어졌다.

신년 음악회를 통한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동창회는 앞선 공연에서도 전쟁 난민과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 유니세프에 기부했다. 동문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행사 운영 경험,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모아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활동을 이어온 것이다.

흔히들 회장배를 내걸고 하는 골프대회도 올해는 꿈나무 지원을 위한 골프대회로 그 취지와 목적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도록 바꾸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굿샷!' 여기에 '나눔'까지 더해져 올해 동창회 골프 토너먼트는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골프 꿈나무 14살의 유망주 브라이언 리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참여한 모두가 흐뭇한 시간들을 함께하였다.

또한 2026년 올해 여름에는 지역 교육 봉사로 활동의 폭을 넓혔다.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세리토스 서울대 동창회 사무실에서 8-12세 어린이를 위한 '로봇 데이 캠프'를 마련했다. 초보자 16명을 대상으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교육용 로봇을 직접 다루며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울 기회였다. 한홍택 박

사의 로봇 기증, 재미 한미 과학자 협회의 홍보, 공대 동문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탰다. 특히 남가주 지역사회 위원장인 공대 75 심재호 동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과 교육의 전과정에 봉사했으며, 사례로 받은 750달러를 베네수엘라 성금에 보태기도 했다.

참가비는 학생당 250달러였다. 박 동문은 식사와 음료, 보험, 강사 등 운영에 드는 비용이 참가비를 웃돌아 총동창회가 부족분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그는 캠프를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봉사로 보고 있다. 나눔은 현금 기부 뿐 아니라 동문이 쌓은 전문성과 시간을 어린이에게 건네는 일로도 실현된다.

그동안 함께 참가한 동문은 봉사에 동참하는 이유를 자신이 받은 기회에서 찾았다. 그는 "어린 시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잘나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사범대의 경우 타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1/4밖에 안됐다"며 "나이를 먹고 보니 '나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총동창회에서 진행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누린 배움과 기회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의미다.

동창회 안에서는 교회가 선교를 중요한 사명으로 삼듯, 동창회도 친목과 함께 사회를 위한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나눔을 지속 사업으로 선택한 배경이다. 음악회는 재능을, 로봇 캠프는 지식과 시간을, 구호 모금은 정성 담긴 마음을 나눴다. 동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봉사에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 했다.

글·사진=남가주 총동창회 제공

기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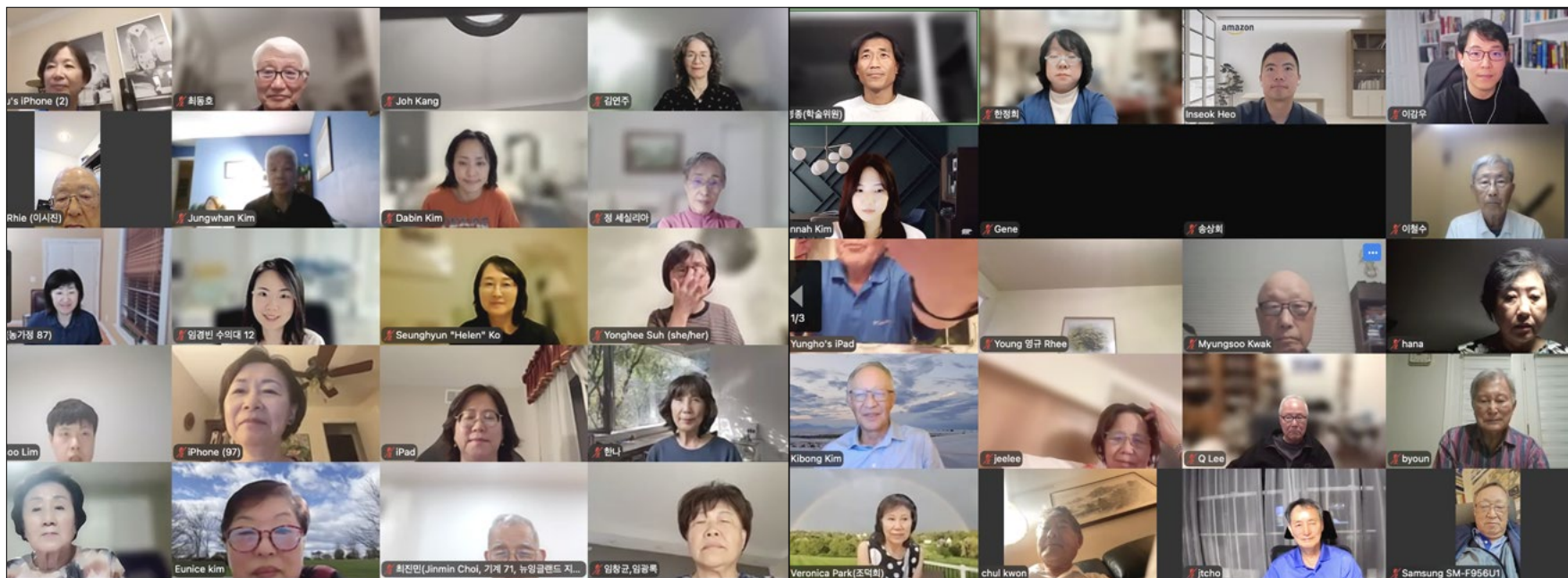
동문 이름	금액
이 병준	\$2,000.00
이 상강/김경숙	\$2,000.00
SNUAA USA	\$1,000.00
양 수진	\$1,000.00
이 명선 S.	\$1,000.00
심 재호	\$750.00
김 자성	\$500.00
김 정상	\$500.00
노 명호	\$500.00
신 영찬	\$500.00
이 찬용	\$500.00
이 현림	\$400.00
나 용화	\$300.00
박 성연	\$300.00
염 동해	\$300.00
이 명규	\$300.00
김 선기	\$200.00
김 옥정	\$200.00
오 선웅	\$200.00
김 경옥	\$100.00
김 영혜	\$100.00
박 용필	\$100.00
백 인분	\$100.00
백 헤란	\$100.00
성 수환	\$100.00
신 정식	\$100.00
이 호진	\$100.00
임 지영	\$100.00
임 창희	\$100.00
장 원경	\$100.00
정 종선	\$100.00
최 헤명	\$100.00
한 석란	\$100.00
홍 선애	\$100.00
박 자경	\$50.00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952-567-3477 | Email: contact@snuaa.org



워싱턴 DC 동문회가 지난 9월 16일 개최한 학술 모임에는 무려 94명의 동문과 지인들이 참석했다.

워싱턴 D.C. 동문회, AI 줌 세미나에 94명 대성황

미주 전역 동문 초청한 300명 동시 접속 모임
홍보 부족에도 높은 관심, 학술 공동체 가능성

서울대학교 워싱턴 DC. 동문회(회장 남옥현)가 지난 9월 16일 저녁 8시(동부시간) ‘AI 시대에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학술 행사에는 무려 94명의 동문과 지인들이 참석했다.

워싱턴 DC. 동문회 학술팀(팀장 이영종)은 이번 ZOOM 세미나를 미주 전역의 동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규모로 준비했다. 참가자들이 프로필에 지역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 타 지역 동문들의 정확한 참여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일 지부 차원의 온라인 학술 행사에 무려 9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주 각 지역 동문회에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여건에서도,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사는 학술팀 김한나(대학원 정책학과 20)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세 명의 동문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각각 국가 경쟁력, 국제개발 현장, 공공 부문의 AI 활용 사례를 심도 있게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1부: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국가 AI 경쟁력

강사 이관후(산업공학 87)
아메리칸대학교 코고드 경영대 교수

아메리칸 대학교 코고드 경영대학 정교수이자 응용인공지능연구원장인 이관후 동문(산업공학 87)은 최근 출간한 저서 《초변영》을 바탕으로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하는 8대 핵심 요소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인재(Talent), 최고위 리더십과 전략(High-Level Leadership & Strategy), 연구개발(R&D), 투자(Investment), 벤처 생태계(Venture Ecosystem), 인프라(Infrastructure), 규범과 거버넌스(Norms & Governance), 글로벌 협력(Global Collaboration)의 첫 글자를 딴 ‘T.H.R.I.V.I.N.G.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8가지 요소는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으로 작동하여, 어느 한 요소라도 취약하면 전체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미·중 슈퍼파워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메모리 하드웨어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들 파워의 선두 주자로 도약해야 하며, 향후 단순한 패스트 팔로어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깊이 있는 연구 문화와 소프트웨어·물리적 AI 역량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부: 국제개발 현장에서 본 AI의 잠재력과 한계

강사 이감우(컴퓨터공학 99)
WorldBank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세계은행(WorldBank) AI 데이터팀에서 근무하는 이감우 동문(컴퓨터공학 99)은 데이터와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전했다.

AI의 핵심 능력으로 ‘종합성’과 ‘추상화’를 꼽은 그는, 위성 이미지와 도로망 데이터를 활용해 빈곤 지역의 경제활동 분포를 추정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소개했다. 동시에 AI의 판단 근거를 인간이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성’과 ‘환각 현상’ 등 한계점도 지적했다. AI 전환의 거센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비어 있는 영역을 채워 나가는 유연성과, 기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릿(Grit, 투지)’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3부: AI가 바꾸는 공공 부문의 미래와 업무 방식의 혁신

강사 허인석(전기공학 대학원 07)
Amazon 수석 과학자

아마존웹서비스(AWS) 퍼블릭 AI팀의 허인석 동문(전기공학 대학원 07)은 공공 부문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AI의 진화 과정을 공유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병렬 처리가 AI 발전의 든든한 상한선 역할을 해왔음을 설명하며, 최근에는 1-2명의 소규모 팀이나 비전문가도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축구 테마 학습 앱을 만나질 만에 직접 만든 여쁜 경험을 나누며, AI 시대의 교육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에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가 많은 반복 업무를 대체하더라도, 결과물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문제를 식별하는 ‘전문가의 경험적 판단력’과 인간 고유의 통찰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과 Q&A 세션에서는 AI 시대의 수익화 전망, 자녀 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일반 독자들이 AI 학습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연사들은 입을 모아 ChatGPT나 Claude 같은 AI 챗봇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커리큘럼을 함께 설계해보는 것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워싱턴 DC. 지부의 학술팀에서는 정기적으로 관심있는 주제를 잡아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제까지는 주로 대면 방식으로 모여서 실생활에 유용한 주제나 문화 혹은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적 문제들을 다루어 왔지만, 이번에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미주 전역 동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시도해 본 것이다.

동문회 각 지부에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워싱턴 DC. 지부 자체에서 동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열심히 홍보한 결과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전 미주 동문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학술 주제를 선정하고, 각 지역 동창회와 연계한 사전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지역의 경계를 넘어 미주 전역의 서울대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식을 나누는 대규모 온라인 학술 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주 동문들이 하나의 학술 공동체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취재=한정희(미대 81) 편집위원

필라델피아 신성식(공대 56), 샌디에이고 진성호(공대 64)·유현주(문리대 65) 동문 부부

미주동창회 골드이사 합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에도 서울대 미주동창회 골드이사(1만 달러 이상 후원)에 합류하며 든든한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이 적지 않았다.

필라델피아의 신성식(공대 56) 동문이 앞서 골드이사가 된 배우자 김영우(공대 56) 동문의 뒤를 이어 기존 종신이사 후원금에 7,000달러를 더해 골드이사로 합류했다. 샌디에이고의 진성호(공대 64)·유현주(문리대 65) 동문 부부 역시 기존 종신이사에서 골드이사가 됐다.

신성식 동문은 김영우 동문과 공대 화공과 캠퍼스 커플로 한국 화학공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이재성 교수 밑에서 함께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나란히 미시간 대학 박사과정으로 유학 왔다. 부부 모두 석탄 연구에 30년을 매진했는데 신 동문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Research Center)에서 석탄 가스화 연구로 10년, 연방 에너지부(DOE)에서 청정 석탄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 매니저로 20년을 일하고 은퇴했다.

미국 바이오·테크·벤처 투자 업계의 거물급 전략가로 꼽히는 로렌스 김



샌디에이고 진성호·유현주 동문 부부. 오른쪽은 신성식(가운데 왼쪽)·김영우 동문 부부 가족. 아들이 하버드를 나왔고 손자손녀 3명 모두 하버드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이다.



이 바로 신 동문의 아들이다. 2018년 모더나의 대규모 기업공개를 진두지휘한 데 이어 최근 차세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핵융합 에너지 기업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CFS)의 CFO로 영입돼 경제 금융 매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샌디에이고 진성호·유현주 동문 부부는 UC버클리 유학 시절 만나 진 동문은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벨 연구소를 거쳐 UC샌디에이고 교수로 은퇴했고 유 동문은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 은퇴했다.

부부 슬하에 두 딸이 있는데 프린스턴대를 졸업한 큰딸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의대에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하버드를 졸업한 작은딸은 보스턴의 바이오테크 놀러지 회사에서 통계 관련 일을 하

고 있다.

부부는 코로나 이후 매일 한 시간씩 동네를 산책하며 연애시절 못지 않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진 동문은 “한 시간씩 걸으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한다”며 “서울대를 나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고,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자그마나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세경 동문이 보내온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9월호 독자 소감

내용보다 빛난 통찰과 따뜻한 격려 “감사합니다”

보스턴의 오세경(약대 61) 동문께서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9월호를 꼼꼼히 읽고 정성 어린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동문들의 다양한 활동과 삶의 이야기를 비롯해 역사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회보에 담긴 여러 내용을 두루 언급하며, 동문들의 열정과 나눔이 만들어가는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회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



오세경(약대 61)

있는 모습도 동창생들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남달리 활발한 황호숙 회장의 노력으로 예전보다 많은 Century Foundation 성금이 모금된 것도 괄목할 일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문들이 지역별로 정기적인 단체 활동을 통하여 친교하는 것도 우리 동창생들이 유대를 잘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것은 개개인의 profile이나 이들이 써 보내주신 수필이었습니다. 가령, 남가주의 김일영 동문(의대 65)은 하루에 성경을 80페이지 정도 읽어서 생전에 100번 통독할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은, 은퇴하면 할 것이 없어서 무료하게 지낸다는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an Francisco에서 단원 150명을 이끌고 Master Choral(정지선 단장, 안현수 이사장)을 조직하여 지역 사회에서 한인의 문화 위상을

신 오세경 동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스턴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오세경 동문은 모교에 여러 차례 발전기금을 후원하고 보스턴 자택을 유증하기로 약정했으며, 의치학·과학 일반·서양지성사 등 주요 문헌 1,800여 권을 중앙도서관에 기부해 2019년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높이시고 계신 분, 그리고 나성에 서 흑인 대폭동이 일어난 후에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Global community service를 맡아 애쓰시는 김윤종(약대 64) 동문 등은 우리 조국을 대표하는 민간 대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가 다른 외국에 와서 먹고살기에도 바쁜 우리 이민자 생활에서 개인의 욕구를 넘어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6년은 미국이 독립한 지 250년,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미국 건국의 250년 역사를 요약해서 알려준 이길주 박사의 기사는, 미국 역사에 대하여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소중한 역사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해방을 촉진시켜준 Alexis Johnson 영사, 그리고 대한독립을 진심으로 축하해준 트루먼 대통령의 축사는 우리 국민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트루먼 대통령이, 2차

대전 후의 폐허에 놓여진 우리의 가난한 동포를 위해 연합군을 조성하여 중공군의 무지막지한 침략에서 구제하여 주신 것을 보면, 진정한 인격은 오직 화려한 학벌로만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박한 동정심이 아니었던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배출한 미국의 역사를 볼 때, 과연 이들은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호 동문(치대 80)은 치과의사이면서도 전문적인 시인의 실력을 보유하여 한국 근대 시인들의 작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네요. 역시 치대 출신의 김학천(치대 70) 동문의 글 「8월은 악마의 달」을 읽어 보면 여름에 열대야를 겪고 있는 한국과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사람들의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위와 같은 좋은 내용이 연재된 동창회보는 청명한 토요일 오후의 산책을 내려놓고라도 탐독할 만한 애보였습니다. 미주동창회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AI 시대와 스타트업 – 동문 혁신 리더에게 묻다 (3)

대학 동문 네트워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산업과 기술,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는 미국 전역에서 활약하는 동문 창업가와 벤처투자자들을 만나 그들의 통찰을 전하는 특집 인터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 GFT벤처스 음재훈 대표에 이어 세 번째 주인공은 송재준(전기공학부 97) 크릿벤처스 대표다.

송 대표는 2001년 모바일 게임사 게임빌(現 컴투스홀딩스)에 창업 초기 멤

버로 합류해 세계 최초의 모바일 게임 시장을 개척했다. 2006년 미국에 진출해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 게임 업계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였으며, 2013년 컴투스 인수, 누적 매출 30억 달러를 넘긴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흥행까지 한국 모바일 게임의 세계화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컴투스 대표를 거쳐 2020년 크릿벤처스를 설립해 현재까지 140여 개 스타트업에 투자해왔으며, 모교인 서울공대에서 ‘창업가형 공학기술 혁신인재’ 프로그램의 설계자이자 멘토로 후배 창업가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처음부터 전 세계를 시장으로 열어 놓고 시작하라”

이번 인터뷰는 미국에서 현장직 근로자를 위한 AI 구직 에이전트인 서클(Circle)을 창업한 하륜(법대 02) 대표가 진행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합격 후 맥킨지 뉴욕 사무소를 거쳐 창업의 길을 택한 하 동문은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 SNUAA EDGE 2026에서 송 대표를 만난 인연으로, 지난 9월 11일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Q1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게임빌에 합류해 창업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이 자연스러운 진로가 아니었을 텐데, 창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창업 초기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재준 대표: 딱히 거창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과 랩 창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 생태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친형인 송병준(전기공학부 94) 대표가 시작한 회사에 합류했으니, 자연스럽게 창업의 길에 들어선 셈입니다. 당시 한국은 창업이 막 태동하던 시기로, 2000년 즈음 인터넷 태동기에 여러 닷컴 회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창업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특히 게임 쪽은 이미 1990년대에 넥슨, 엔씨소프트처럼 서울대 선배들이 창업한 회사들이 있었고, 저도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초기 원동력은 단순했습니다.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실험해 본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밤을 새워 보고, 쪽잠도 자 보면서 실험해 본 끝에, 아침 9시 출근, 밤 12시 퇴근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매일 15시간을 휴가도 없이 7년 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내가 드라이브하는 대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경험이었으니까요.

게임빌은 원래 PC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마침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휴대폰을 내놓았고, 2001년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는데, 매출이랄 것도 없었지만 가능성을 봤습니다. 흑백폰에서 256컬러폰으로 시장이 조금씩 만들어지던 때, 조성문 동문(전기공학부 96)이 개발을, 제가 사업을 맡아 게임을 만들고 시장을 초기부터 장악해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절대적인 업무량 자체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맨 위에서 시장을 보고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사이클을 어린 나이부터 빠르게 돌려보는 경험



하륜 동문이 지난 9월 송재준(왼쪽) 크릿벤처스 대표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Q2 창업 초기의 송재준과 지금의 송재준을 비교해보면, 그대로인 점은 무엇이고, 반대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송재준 대표: 재밌는 질문입니다. 옛날의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 자체가 좋아서,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돼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항상 고민했고, 회식을 하더라도 무조건 새벽 2시 전에는 잔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15시간을 돌리려면 잠을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대로인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이 재미있고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하루 15시간을 일주일 내내 지속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365일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별로 지치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 쉬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을 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잖아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니 휴가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휴가를 잘 안 갑니다(웃음).

예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조직의 퍼포먼스를 잘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점입니다. 혼자 열심히 해서 내는 성과는 조직이 다섯 명만 넘어가도 그 조직이 내는 성과에 역전 당하

게 됩니다. 저희 야구 게임에 비유하면 ‘컴투스 프로야구’는 내가 직접 던지고 치는 게임이고, ‘컴투스 프로야구 매니저’는 구단주가 되어 리그를 운영하는 게임인데, 어릴 때는 오타니처럼 혼자 던지고 치며 끌고 갔다면, 지금은 매니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조직이 결과를 잘 달성할 수 있을지에 시간을 씁니다. 똑같이 재밌게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직접 치고 달리는 게임을 할 것이냐, 매니저먼트 게임을 할 것이냐. 그 포커스가 달라진 것이 옛날과 지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3 게임빌 초기부터 컴투스 인수와 글로벌 성장까지 20년 넘게 한 산업의 변화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수많은 의사결정 가운데 “이 결정이 회사의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송재준 대표: 회사 초기부터 바로 미국 지사를 세운 것입니다. 2006년 동문인 이규창(물리학과 95) 선배가 게임빌 USA 초대 지사장으로 부임해서 LA에 갔는데, 원래 DB 개발자였던 분이 우리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한다는 이유 하나로 뽑은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피쳐폰 시절이라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이동 통신사와 직접 계약해야 했는데, AT&T나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는 전 세계 게임 회사 10개 정도만 계약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반다이남코, 코나미 같은 일본 대기업만 있던 그 문을, 한국에서 게임빌이 최초로 뚫었습니다. 성공가능성을 따지고

ROI를 계산했다면 못했을 일입니다.

그렇게 미국 현지에 있다 보니 아이폰의 흐름을 남들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이전에 앱스토어가 깔린 아이팟 터치가 나와 팔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핸드폰 게임을 만드는 회사지만, 아이팟 터치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밀어붙였고, 앱스토어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처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미 게임을 서비스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초기부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그제야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제대로 된 팀이 1년 넘게 만들어진 개발 프로세스를 아이폰에 적용하는 작업까지 끝내 놓은 상태였으니 시장을 압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계 시장에 억 단위로 인스톨을 깔았고, 크로스 프로모션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갈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역시 주류가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덕분에, 구글이 출시할 때 이미 스탠바이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2007-2010년 사이에 매출이 글로벌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피쳐폰에서 통신사에 게임을 공급하던 회사가 순식간에 스마트폰 글로벌 게임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은 2013년 컴투스 인수입니다. 컴투스는 고려대 출신들이 만든 경쟁사였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가 앞서갔기 때문에 인수할 동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인수 이듬해에 나온 ‘서머너즈 워’가 누적 매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히트를



송재준(전기공학부 97) 크릿벤처스 대표, 컴투스 글로벌투자최고책임자

➔ 치면서 컴투스가 지금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한 야구 게임인 'MLB 9이닝스'는 EA 같은 경쟁사를 따돌리고 MLB 라이선스 모바일 게임 중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근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미국 지사를 세워 처음부터 글로벌 현지에서 먼저 시작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Q4 직접 글로벌 사업을 해보았고, 최근 크릿벤처스를 통해서도 미국 시장 등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고 계신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창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송재준 대표: 해외 진출에 정답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기반을 쌓은 회사도 있고, 저처럼 한국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뒤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플레이북을 찾아서 하면 됩

그러다 보면 기회가 열립니다.

Q5 최근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패의 경험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은 특히 창업과 안정적인 진로 사이에서 커리어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많은 동문들이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송재준 대표: 솔직히 저 자신이 큰 실패를 해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창업에 뛰어들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실패하더라도 경험에서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은 “창업을 도전 해보라”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창업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당연히 성공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일 텐데, 그러면

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시간 제한 없이 일했을 테니 일도 훨씬 많이 해 봤을 것이고요. 결국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창업에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6 최근 서울공대의 '창업가형 공학기술 혁신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직접 이끌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서울대에서 성공한 창업가가 더 많이 나오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준 대표: 계기가 재미있습니다. 작년에 서울공대 위기 극복 세미나에 패널로 초대됐는데, 김영오 공대 학장님께서 우수한 인재가 공대에 안 오고 의대로 가서 공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수한 인재를 끌어오려면 공대에서 창업을 가르쳐서 성공한 창업가를 많이 만들어야 똑똑한 아이들이 그 길을 보고 오지 않겠느냐고 했

김영오 학장님께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권을 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1년에 20여명이지만 5년, 10년이 지나 수백명의 창업가가 여기서 양성되고, 그중에 성공한 창업가가 나와 고용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인상적인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빨리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처음 1-2월 면접 때와 비교하면 9월 1차 평가 발표는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예 제품을 만들어 서비스하며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을 모아 놓은 곳이니 결국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싸움입니다. 매년 800여명이 넘는 서울공대 학생 전원이 창업 수업을 다 듣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7 마지막으로, 서울대 동문 네트워크가 친목을 넘어 한국 창업자와 미국 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선배 동문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송재준 대표: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 CES에 이어 이번 8월 샌프란시스코 EDGE행사가 미주 동문회 행사에 두 번째 참여한 것이었는데, 특히 8월 행사는 창업과 프로페셔널이라는 테마로 창업자, 빅테크, 투자자 등 여러 동문들이 모였고, 밀도 있는 실제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 동문회도 좋지만 창업·테크, 법률·금융, 학계처럼 섹터를 나눠서 하는 동문 행사를 더 자주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번 차이가 크고 섹터가 다르면 “무슨 일 하세요”로 끝나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문들끼리는 나이를 넘어 언어가 통하고 경험이 전수되며, 젊은 동문과 경험 있는 동문이 서로에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 동문회가 선배가 만나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간 가까운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5년 전 없던 시장을 만들던 몰입이 이제는 투자자이자 선배 창업자로서 후배들을 키워 가는 열정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었다. “처음부터 전 세계를 열어 놓고 시작하라”는 그의 조언은 필자에게도, 선택의 기로에 선 후배들에게도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귀한 시간을 내어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 주신 송재준 대표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글=하륜(법대 02)



AI 구조 에이전트인 서클의 하륜 대표.

창업 초기 일주일 100시간, 7년... 없는 시장을 만들어 장악하는 재미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세운 미국 지사가 스마트폰 시대 선점의 발판
해외 진출에 정답지는 없다, 일단 열어 놓고 하면서 고쳐라
창업은 리스크가 없다... 명확한 아이템이 있으면 창업하라
서울공대 80년 역사상 첫 학점 인정 창업 과정 만들어 후배 양성

니다. 다만 한국에서 창업해 글로벌로 나가는 분들이 많으니 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컬성이 아주 강한 아이템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반드시 동시에 하라고 추천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직 한국에서도 안 다들여졌는데, 완전히 다들고 나가야 승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B2C든 B2B든 일단 전 세계에 오픈을 먼저 해 보십시오. 어느 국가에서 먼저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거기서 힌트를 찾아 확장할 수도 있으니 확률이 훨씬 넓어집니다. 특히나 언어 장벽도 AI 덕분에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과감하게 도전하고, 거기서 오는 유저 데이터와 피드백, 교훈을 가지고 전략을 튜닝해 가면 됩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꼭 미국에 나와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현지에 한 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의 데이터, 수치화할 수 없는 감, 네트워크에서 오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셋업하기보다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저비용으로 시작해 조금씩 매출을 만들며 성장해 가는 방식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실무자나 임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현지에서 나오는 의견을 직접 챙기면서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한국 중심의 우선순위를 때로는 조정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승부를 볼 수 있는 모멘텀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멘탈 바운더리를 걷어내고 전 세계를 열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뭐가 마이너스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학생들에게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창업 했다가 실패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VC 등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좋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전과 달라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업에 실패해서 커리어가 꼬이고 취직도 안 되면 어쩌나 걱정할 수 있는데, 그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된 경우, 그 실패의 경험을 높이 사 주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대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흔히 창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취업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는데, 창업이 과연 하이 리스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 창업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 아답니까. 그러면 안하는 게 바보 아니냐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웃음).

실패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가도 처음에는 큰 조직에서 작은 부분, 그 중에서도 일부만을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꼭대기에서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짜고 제품을 만들고 투자까지 경험하면서 위에서 보는 연습을 미리 하는 것인데, 대기업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스타트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성장해온 사람은 대기업이든 어디든 가면 아마 일을 굉장히 잘한다

습니다. 지금도 공대 출신 선배 중에 성공한 창업자가 너무 많은데, 학교는 왜 아직도 창업을 가르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스탠퍼드 같은 곳은 이미 학교의 존재 목적이 창업가 육성으로 바뀐 지 오래인데 서울대는 아직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깊이 공감을 하시며, 창업가형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제가 건 조건이 있었는데, 학생 면접을 제가 직접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대 동문인 카카오 공동창업자 이제범(산업공학과 97), 샌드버드 창업자 김동신(컴퓨터공학과 99), 네이버웹툰 대표 김준구(응용화학부 97),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세 분을 모셔서 글로벌 멘토단을 만들어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20여명의 학생들이, 1학기에는 공대 각 과 교수님들의 분야별 핵심 기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창업 아이템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방학에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2학기에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와서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들은 팀을 셋업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봅니다. 여기에 크릿벤처스를 비롯한 VC 세 곳이 실무 멘토를 파견해 매주 멘토링을 하는데, 세 VC의 대표와 멘토가 모두 서울공대 출신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창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공대 80년 역사상 최초로 2학기에 걸쳐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서울공대도 학점을 주며 창업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르본에선 불어 배우고 줄리어드에선 피아노 공부”

북가주 윤정옥(음대 64) 동문, 여든의 나이에든 식지 않는 배움의 열정

북가주 윤정옥(음대 피아노과 64) 동문은 요즘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짧은 전화 인터뷰 동안 윤 동문 스스로도 여러 번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는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윤 동문은 올해로 4년째 여름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 파리에 머물며 소르본(Sorbonne) 대학에서 불어를 배우고 있다.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

가슴이 벅찼고 나중에는 그 힘든 과정을 마침내 패스해 블루 도장이 찍힌 수료증을 받고, A에서 A2로 레벨을 올리는 성취까지 이루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집으로 돌아와서도 윤 동문의 불어 공부는 멈추지 않는다. 매주 월요일 한 시간씩 소르본대 교수와 1대 1로 좀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소르본만이 아니다. 그는 전

올해로 4년째, 매해 7월이면 파리에 가 불어 공부

오디션 뚫고 시작한 줄리어드 5년째 피아노 수업

렵의 유서 깊은 지성의 요람, 그 소르본 대학의 학생이 되어 7월 한 달 동안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젊은 대학생들과 어울려 불어를 공부한다.

물론 쉽지 않다. 아니 몹시 어렵다. 방금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여든의 나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따라가려면 오후 내내 숙제와 다음 날 수업 연습에 매달려야 하고 금요일에는 시험도 치른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고 부러워하는 ‘파리 한 달 살기’의 로망과는 사뭇 다른, 고 3수험생을 방불케하는 치열한 나날이다. 그래도 윤 동문은 행복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의 문화와 풍경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불어를 배우다가, 2023년 간단한 시험을 거쳐 소르본 대학 여름 학교에 처음 등록했죠. 처음에는 소르본 대학의 학생이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계 음악도들이 선망하는 줄리어드의 학생이기도 하다. 비록 익스텐션 스튜던트이지만 줄리어드의 문턱은 명성에 걸맞게 높았다. 그는 2022년 세 명의 교수 앞에서 두 곡을 연주하는 오디션을 치렀고, 합격하고서야 줄리어드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후 지금까지 5년째, 가을 학기와 봄 학기마다 줌 수업과 교수의 개인 레슨을 병행하며 일주일에 두 번씩 피아노 공부를 거르지 않고 있다. 학기가 끝나면 세 곡을 연주하는 리사이틀을 해서 합격해야 다음 학기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인과 전화로 수다를 떨 시간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인에게 “독일 병정 같다”는 말까지 들으며 여든의 나이에든 이토록 뜨겁게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할 수 있



소르본 대학 프랑스어·프랑스문화 강좌(CCFS) 건물 앞에 선 윤정옥 동문.

으니까 계속하는 거지요. 또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파리의 소르본과 뉴욕의 줄리어드를 늘 좋아했는데, 두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근사하고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 동문은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와 보스턴 대학과 오하이오 대학에서 피아노를 공

부했다.

1973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한편, 자신도 꾸준히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한창때는 일주일에 80명까지 레슨을 했으며 지금도 의사와 교수 등 음악 애호가와 학생 20명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

글=신복례(인문대 83) 동창회보 편집장

“인디애나에서도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질 거예요”

한국전통예술원 창립한 정은선(국악과 04) 동문

창단 연주회 마치고 우리 전통 문화 알리기 박차

지난 10여 년간 인디애나 곳곳에서 공연과 워크숍을 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 온 가야금 연주자 정은선(음대 국악과 04) 동문이 지난 8월 23일 카멜 소재 더 타킹턴 극장에서 ‘인디애나 한국전통예술원(KPAC Indiana)’ 창단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디애나주에서 활동하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국악인이었던 정 동문은 지난해 8월 ‘인디애나 한국전통예술원’을 설립하고 1년여의 준비 끝에 이날 한인 동포를 비롯해 인디애나 각계 주요 인사와 한국계 입양아 가족들을 초청해 ‘흥’을 타이틀로 창단 연주회를 펼쳤다.

가야금 4중주와 산조 합주, 설장구, 사물놀이, 부채춤에 이어 양방언 작곡의 국악 크로스오버 히트곡 ‘프론티어’까지, 미국 각지에서 초청된 전문 국악 연주자들과 지난 1년 간 우리 가락

과 장단을 열심히 익혀 온 학생들의 연주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정은선 동문은 인사말에서 “매주 악기를 잡고 가락을 익히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보람을 느낀다”면서 “한국의 소리와 춤사위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고, 미국 분들에게는 한국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아시아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함께 참여해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김병석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대표님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다른 국악인들과 뜻을 모아 단체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디애나 한국전통예술원은 창단 이래 인디애나 전역의 도서관, 박물관, 학교 축제, 커뮤니티 기념행사 등에서 모두 19회의 공연과 협업, 워크숍을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창단 공연 직후인 9월에는 코리아 페스티벌에 참여했으며 10월에는 인디애나 주립대의 ‘한국 문화 페스티벌’, 11월에는 ‘스피릿 앤 플레이스 페스티벌(Spirit & Place Festival)’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정 동문은 “한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주류 사회에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통예술을 통해 인디애나 안에서 한인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자리잡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동문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인디애나 대학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 진문균(경제학과 99) 동문이다.

진 동문은 부이사장과 재무를 맡아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인디애나 한국전통예술원을 창단한 정은선 동문.

SNUAA 9월 포럼

AI의 산업별 활용사례와 적용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클럽의 김재훈 동문이 주관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SNUAA 9월 포럼이 지난 9월 12일 ‘AI의 산업별 활용 사례와 적용’을 주제로 열렸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데이비드 오 시니어 GenAI 스페셜리스트가 강사로 나서 생성형 AI의 기본 원리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프런티어 모델, 오픈 웨이트 모델, 최근 최대 화두인 AI 에이전트까지 폭넓게 설명했다. 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줌으로 열린 강연에는 미주 전역에서 40명에 가까운 동문들이 참여해 강연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자신들이 일상 생활과 업무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들려주면서 유익하고 활기찬 대화를 나눴다.

AI 에이전트 시대, AI에게 어디까지 일을 맡길 것인가

초청강사
데이비드 오(공대 82)
AWS 수석 GenAI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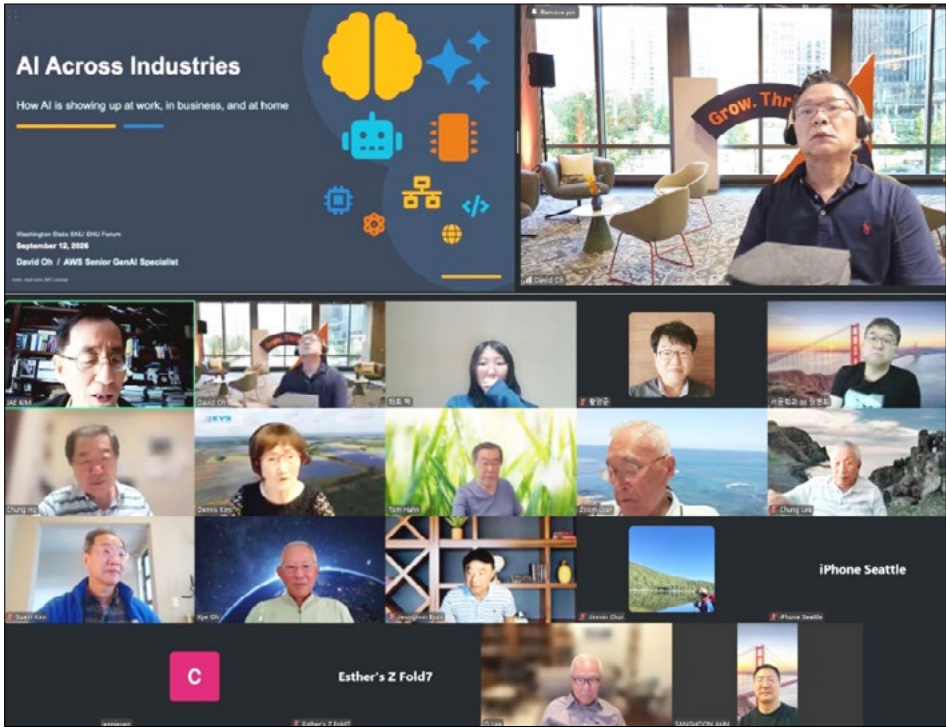
이날 강연의 핵심은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느냐”보다 “우리가 AI에게 어디까지 일을 맡길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데이비드 오 동문은 특히 생성형 AI가 단순히 문장을 만들어주는 단계에서 벗어나 추론하고 계획을 세우며 외부 도구를 사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AI 에이전트가 일정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여행 사이트 등 외부 도구를 불러 실제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항공권 구매나 돈의 지출, 건강·법률 관련 결정, 외부 메시지 전송처럼 중요한 행동에는 반드시 사람이 최종 승인하는 ‘Human in the Loop’가 필요하다고 오씨는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매주 직접 해야 했던 피트니스 코트 예약을 자동화하고,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연구 아이디어를 뽑고 데이터 클리닝과 분석, 논문 초안 작성까지 이어가는 실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AI가 다 해주니 사람이 할 일



지난 9월 12일 ‘AI의 산업별 활용사례와 적용’을 주제로 열린SNUAA 포럼에는 40명에 가까운 동문이 참여해 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이 데이비드 오(공대 82-증 화면 맨 위쪽) 초청 강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결국 어떤 연구 방향을 선택하고 결과를 평가할지는 사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산업현장의 AI 활용사례도 큰 관심을 끌었다. 데이비드 오 동문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방대한 연구자료를 검색하고 신약 후보를 찾는 과정, 연구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자동화

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과거 컴퓨터 전문가가 해야 했던 복잡한 데이터 검색과 분석을 AI 에이전트를 통해 일반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신약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지에 대한 우려도 빠지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AI가 업무 효율을 크게 높

이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1~2년 뒤 직업세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을 함께 털어냈다. 오 동문 역시 AI가 매달 체감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 이제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전문직 현장에서도 본격적인 활용 단계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강연 막판까지 ChatGPT와 Claude, Gemini 등 모델별 특징과 AI 데이터센터·GPU 수요, 오픈웨이트 모델, ‘AI 주권(Sovereign AI)’, 한국의 AI 투자 등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포럼이 끝날 무렵에는 “이런 강연을 한번 더 이어서 해달라”는 요청까지 나왔다.

이번 SNUAA포럼은 AI를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일상과 직장, 연구와 산업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재의 도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문가의 일방적인 강의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사용 경험과 궁금증, 우려를 자유롭게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AI 시대에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SNUAA 포럼은 지역사회에도 개방돼 이날 강연 내용은 현지 한인 언론인 시애틀 한인 뉴스넷에도 상세히 소개됐다.

김량국(사대 92)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9월 모임

박민규(농대 98) 동문의 EuchroGene

AI로 허무는 생물정보 분석의 장벽... EGBI 플랫폼 소개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9월 정기 모임이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박민규 동문(농대 98·사진)이 유전체 데이터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EuchroGene이 개발한 ‘EGBI 생물정보 분석 플랫폼’을 소개했다.

박 동문은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는 비용과 시간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줄었지만, 데이터를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해석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식물, 미생물, 환자 시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서열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실이 리눅스 명령어와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소수의 생물정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는 쌓이지만 분석은 수개월씩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발표에서는 생물정보 분석 기술의 발전 과정도 소개됐다. 초기에는 연구자가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여러 명령어를 수작업으로 연결해야



했다. 이후 표준화된 자동화 파이프라인과 클라우드, 컨테이너 기술이 도입되면서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고 재현하기 쉬워졌지만, 파이프라인을 선택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최근에는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AI 에이전트가 연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분석 파이프라인을 선택해 실행한 뒤 결과까지 설명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 박 동문은 EGBI 플랫폼이 이러한 AI 에이전트 기반 분석 방식을 실제 연구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EGBI는 연구실 단위로 설치되는 웹 기반 생물정보 분석 환경이다. 연구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서열 검색 도구인 BLAST, 유전체 브라우저, 연구실 공유 저장소, JupyterLab 프로그래밍 환경과 일정 및 메시지 협업 도구를 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는 연구실 전용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관리되며, 사용자별 접근 권한과 작업 감사 기록도 제공된다.

플랫폼의 중심에는 연구자와 대화하며 분석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있다. 연구자가 대화창에 "이 RNA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해 줘"라고 입력하면, 에이전트가 적절한 파이프라인을 선택해 연구자의 작업 공간에서 실행한다. 분석이 끝나면 결과 파일을 읽고 주요 내용을 정리한 해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장시간이 필요한 작업은 백

그라운드에서 계속 수행한 뒤 완료 사실을 메시지로 알려준다. 덕분에 연구자는 복잡한 명령어나 프로그램 사용법보다 분석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질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박 동문은 좋은 분석 도구의 목적인 연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더 중요한 질문에 시간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chroGene은 학부생도 연구실에 들어온 첫 주부터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고, 랩미팅에서는 긴 코드보다 연구 결과와 다음 실험을 토론하는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GBI 플랫폼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시연 문의는 EuchroGene 홈페이지(euchrogene.com) 또는 bioinformatics@euchrogene.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넷은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문의: 김량국(rkim@oakbioinformatics.com)



2027 SNUAA SCHOLARSHIP FOR SNU ISP
STUDY ABROAD IN SEOUL, KOREA | APPLICATION NOW OPEN

10 Scholarships of \$10,000 each
Your Pathway to an Unforgettable Academic and Cultural Experience.

FUNDED BY THE SNUAA GENERAL FUND & 15 VISIONARY ALUMNI DONORS.

DEADLINE: NOV 30, 2026
REVIEW: DEC 2026 – JAN 2027
NOTIFICATION: FEB 1, 2027
AWARD CEREMONY JUN 26, 2027

HONORING OUR DONORS:

- Hahn-Paek Scholarship
- Kwang & Kook-Hwa Koh Sci/Eng Scholarship
- Samick Scholarship
- Lee+Ro Water Infrastructure Scholarship
- Hyosook Hwang Leadership Scholarship
- Kwonsik & Sung Sook Kim Scholarship
- Kyung Ae Lee Women's Leadership Scholarship

APPLY NOW **LEARN MORE** **SCAN FOR DETAILS**

WEB: SNUAA.ORG/SCHOLARSHIP | EMAIL: CONTACT@SNUAA.ORG

미주동창회 한홍택 장학위원장이 시를 이용해 만든 장학 프로그램 홍보 디자인.

서울대 미주동창회, 2027년도 SNU ISP 장학생 모집

한국계 10명 선발, 1인당 1만 달러 장학금 지급
여름방학 서울대에서 5주간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
한국 역사·문화 체험하며 세계 각국 학생들과 교류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가 2027년도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International Summer Program, 이하 SNU ISP)에 참가할 장학생을 모집한다.

미주동창회는 지난해 SNUAA USA 장학 프로그램을 개편해 장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 서울대 캠퍼스에서 공부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6년도 장학생들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운영된 SNU ISP를 마친 뒤 “학문적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서울 곳곳을 돌아보며 나의 뿌리와 문화를 배우고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국을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미주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SNU ISP는 전 세계 학부생을 초청해 5주간 진행되는 국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AI 공학부터 한국 문화에 이르기까지 30개 이상의 강좌 가운데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 세계 각국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학업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K-컬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인기가 높다.

2027년도 장학생도 모두 10명을 선발하며 1인당 장학금은 1만 달러다. 미주동창회가 서울대에 SNU ISP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약 5,000달러에 달하는 잔여 금액은 항공료와 생활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6년 11월 1일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계 학생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접수 마감은 11월 30일이며, 미주동창회 온라인 포털(snuaa.org)을 통해 지원서와 대학 성적증명서, 이력서, 장래 목적에 대한 500자 에세이, 추천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 결과는 2027년 2월 1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한홍택(공대 60·UCLA 석좌교수) 장학위원장은 “SNU ISP는 아시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적 우수성을 체험하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학업 성취도, 창의성, 지도력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전문 분야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동창회는 장학 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부자의 이름을 딴 ‘지명 장학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지난 8월초 서울대 국제하계강좌에 참가한 미주동창회 장학생 글로리아 조와 매튜 리를 총동창회관으로 초청해 격려했다. 왼쪽부터 이준식 총동창회장, 글로리아 조, 매튜 리, 송우엽 총동창회 사무총장.

금(Named Scholarsh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도 SNU ISP 지명 장학금은 모두 7개였다. 기존 ▲한홍택 박사의 ‘한백 장학금’(SNUAA Hahn-Paek Scholarship) ▲김종섭 전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삼익 장학금’(SNUAA Samick Scholarship)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의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장학금’(SNUAA Kwang & Kook-Hwa Koh Science/Engineering Scholarship) ▲노명호 제16대 미주동창회장의 ‘워터 인프라 스트럭처 장학금’(SNUAA Lee & Ro Water Infrastructure Scholarship)

에 더해 새로 4명의 동문이 지명 장학금 후원에 동참했다.

황효숙(사대 65) 제18대 미주동창회장은 ‘여성 리더십 장학금’(SNUAA Hyosook Hwang Women's Leadership Scholarship), 이경애(문리대 58) 동문은 ‘리더십 장학금’(SNUAA Kyung Ae Lee Leadership Scholarship), 김권식(공대 61) 상임고문은 아내 고 황성숙 여사와 자신의 이름을 딴 ‘김권식 & 성숙 장학금’(SNUAA Kwonsik & Sungsook Kim Scholarship)을 신설했다.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contact@snuaa.org

My Reflection on the SNUAA USA Scholarship in Korea

Exploring Seoul, Embracing Culture, Building Connections



Mia Martinez
Northwestern University

This summer I had the honor of spending five weeks in Seoul, South Korea study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I’m immensely grateful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 for sponsoring my scholarship. The program was transformative as I experienced life as a Korean university student by living in the university dorms, navigating city transportation, and attending classes on campus. The most rewarding part of the summer, though, was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my half-Korean heritage by exploring the city and its rich culture.

Because this was my third time visiting Seoul, I was already familiar with the city and its

sites. However, I was grateful to experience it through a new lens after completing my first year of Korean language courses at Northwestern University. Since I could communicate comfortably with locals, I enjoyed practicing my Korean language skills and developing my fluency.

The program offered me a new perspective on a part of my identity that I had previously experienced mainly as a visitor. Additionally, the program offered weekly cultural field trips to sites like the DMZ, Everland, and historic landmarks throughout Seoul. These excursions were an amazing chan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become truly immersed in the city’s culture.

My first class was Transnational Korean Media and Popular Culture where I learned about Korean popular music and cinema culture and its international influence. Professor Han introduced us to Korean singers, actors, and film producers as we watched dramas and documentaries about the events that influenced Korea’s media landscape. After reflecting on everything I learned about media, I connect the insight I gained from this course to what



Weekend trip to Busan with friends.

I’ve learned at Northwestern through my journalism major. I look forward to applying these lessons to my future studies. In the afternoon I took Introduction to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During the four-week class period, we analyzed several ethnographies with Professor Park.

I learned how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disorders are understood across different cultures; we discussed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s suffering and broader social structures. I’m excited to discover how this course relates to my pre-medical studies as I work towards achieving my goal of becoming a physician. I enjoyed taking these courses that I wouldn’t

normally have the time to explore at Northwestern.

My advice for future students would be to take this great opportunity to connect with fellow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It’s a rare chance to be in one place with so many different cultures, so it’s important to take advantage of all that you can learn from such a diverse environment. Explore the city, make new friends, and adapt to a new culture because it’s a once-in-a-lifetime experience.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the SNUAA-USA for such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explore my academic interests, learn about my culture, and develop many new relationships this summer.

Learning History, Connecting with My Roots and Culture



Hannah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The SNU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was a unique and valuable experience this summer. It introduced me to many opportunities that I would not have otherwise experienced, including engaging classes and exciting field trips. Through this program, I made many friends and connected with professors,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my peers.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is program to others, especially through the SNUAA USA Scholarship. There are so many stories I could share in this reflection, but here are some highlights from my experience.

One of the courses I took during the SNU ISP was 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In this course, I learned the fundamentals of machine learning, including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earning, deep learning, and end-to-end learning. The material was challenging, but it pushed me to explore new concepts and deepen my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Through working with my peers on difficult assignments and receiving guidance from the professor, I was able to better grasp these concepts. I remember feeling especially rewarded when I finally understood something that had initially seemed difficult. This course reminded me that learning something new can be challenging, but it can also be incredibly fulfilling.

My second class was a metal casting workshop focused on jewelry and small object making. In this workshop, I learned the fundamentals of metal casting, from planning my ideas to wax molding, mold making, metal casting, and finishing. Because this was an interactive class, I

was deeply involved in the casting process, which allowed me to learn through hands-on experience. I remember feeling very satisfied with my work, even though it had some imperfections. It was exciting to create something with my own hands that I could take home, and the experience gave me a new appreciation for the craftsmanship behind jewelry and other metal objects.

One of my favorite memories from the SNU program was visit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 enjoy learning about history, so I was especially excited to visit the museum. I remember closely examining the artifacts because they represented my country, making me feel more connected to my heritage and culture while learning about the history around me. One artifact that caught my eye was the calligraphy by An Jung-geun. I immediately recognized the handprint, then carefully analyzed the calligraphy and tried to interpret its message: “A mediocre craftsman cannot make proper use of a great piece of timber”.



Calligraphy by An Jung-guen.

To me, its practical meaning is that only capable people can make proper use of valuable resources. All in all, I truly enjoyed my time at SNU as a student, especially because I had always dreamed of attending school in Korea. This experience was even more special because I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through SNUAA.

AI와 함께하는 회고록 쓰기 모임 ‘My Way’ … 필라델피아 김현영(수의대 58) 동문

AI를 활용해 동문들의 회고록(memoir) 집필을 돕는 온라인 모임 ‘My Way’의 두 번째 주인공은 필라델피아의 김현영(수의대 58) 동문이었다. 김 동문은 지난 7월 ‘과테말라에 피어나는 진리: Veritas Lux Mea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 킹덤 드림으로)’를 주제로 동문들과 자신의 인생 여정을 나눴고 이날의 이야기는 구글의 AI 오팔을 통해 회고록으로 정리됐다.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진행하는 ‘My Way’ 모임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5시(서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문은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nuaa.org) 우측 중간에 있는 ‘My Way’ 배너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다.

과테말라에 피어나는 진리: Veritas Lux Mea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 킹덤 드림으로)

“빵, 복음, 그리고 치유를 실천으로 옮기다”

내 여정의 기하학: 30, 30, 그리고 20

86세에서 87세로 나이를 먹어가는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제 인생에는 뚜렷한 기하학적 구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80년이 넘는 제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0년, 미국에서 보낸 37년, 그리고 과테말라와 인연을 맺은 20년입니다. ‘나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 여정을 나누려 준비하면서, 이 세 부분이 하나의 빛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1부: 종로(한국)의 그림자 속 한 줄기 빛

12년 동안 제 유년 시절은 온전히 종로5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용두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중학교, 을지로5가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연건동에 있는 수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까지 동네 곳곳을 옮겨 다니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시절, 대학 정문을 지나갈 때면 엠블럼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인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는 그저 하나의 표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전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겨우 7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물질적 성공을 향한 맹렬한 추구가 만연했던 시대였고, 교육은 단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 물질주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굳건히 지탱해 준 정신적 버팀목은 대학 로고에 담긴 심오한 철학과 저의 멘토이신 프랭크 W. 스코필드 박사님의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의사이자 선교사인 스코필드 박사는 제 최고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년에는 서울대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나의 빛이다(Veritas Lux Mea)’라는 말처럼 자신의 빛을 억압받는 이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도왔고,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인재들을 후원했습니다.

수십 년 후인 2024년, 저는 서울대학교 동문회 미국 총회 참석차 크루즈선에 탑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가 관광을 즐겼지만, 저는 일부러 객실에 남아 바다를 바라보며 교가의 역사를 깊이 되새겼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 같은 서구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초기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동양 사상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에 이 교가를 도입한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세계 문명으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의 깊은 인연은 제가 자랑스러운 ‘서울대 수의사상’을 수상하면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의 전폭적인 환대를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호암교관에서 머물렀습니다. 새로 지어진 스코필드 홀에서 그 영예로운 상을 받은 것, 그리고 6개월 후 대학 총장들과 고위 인사들 앞에서 “스코필드의 정신이 과테말라에 전파되다”라는 제목으로 추모 강연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현영 동문이 설립한 GMNET과 USAC 대학이 협력하여 시행한 ‘가정용 젖소 분양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영양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마야 원주민 마을에 설립해 준 누에보 아킬 보건센터 입구에 선 김현영 동문과 부인 이덕주 여사.



제2부: 미시 세계와 아메리칸 드림 (미국)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서른 살에 가족과 함께 조지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왔죠. 수의학은 암 같은 만성 질환에 중점을 두는 인의학과는 달리 미생물이 주된 적입니다. 저는 수의미생물학에 몰두하여 2년 만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Penn)로 편입하여 젖소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케넷 스쿼어에 위치한 700 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대동물 연구 센터인 뉴 볼턴 센터에서 제 세상은 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일반적인 낙농장은 약 100에이커 규모에 소 100마리 정도를 키우는 곳입니다. 뉴 볼턴 센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연구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학자들까지 그곳에 모였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4시나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비옥한 땅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 지역 낙농업을 개척한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녘에 우유 샘플을 채취하여 유방염과 결핵균을 연구하고, 서둘러 실험실로 돌아와 병원균을 배양했습니다. 고되고도 짜릿한 일이었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저는 펜실베이니아 동물 진단 연구소 시스템(PADLS)에서 수의 병리학자로 33년간 근무했습니다. PADLS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그리고 주립 연구소가 주법에 따라 설립한 독특한 3개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광우병(BSE)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저는 면역조직화학 실험실을 개척하고 설립했습니다. 면역학, 조직학, 화학을 융합하여 특정 조직 세포를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색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병원체를 즉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과학적 업적은 광우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에서 발생하는 프리온 질병인 스크래피(Scrapie)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프리온 질병은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매우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면역조직화화법을 통해 뇌 조직을 채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동물의 편도선과 눈꺼풀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을 때,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두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큰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7년제 학사/의학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아름답고 안정적인 삶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과 ‘진리’에 대한 부름은 여전히 제 영혼에 속삭였습니다.

제3부: 은혜의 삼위일체-빵, 복음, 치유

저는 주립 연구소에서 33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미국 수의학 협회(AVMA)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족 구호 단체인 Heifer International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운명의 반전으로, 제가 대학 시절 한국 천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눠주었던 새끼 돼지들이 수십 년 전 헤이퍼 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에서 보내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뿌린 씨앗이 지구를 가로질러 다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미네소타 대학교 같은 기관 소속의 백인 미국인 의사와 교수들로 구성된 15명의 전문가 평가팀에 합류하여 과테말라의 6개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가족 유통 실태를 평가했습니다. 코반에 있는 산카를로스 대학교(USAC) 북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신성한 부름을 받은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접고 아내와 함께 과테말라로 향했습니다.

저는 스코필드 박사의 뒤를 이어 무급 방문 교수로 대학에 부임했습니다. 사비를 들여 대학 내에 유제품 질병 진단 연구소를 설립했고, 미국 대학의 농업 확장 모델을 본떠 농촌 지역 사회에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모친 전해경 동문 별세



북가주 펠로알토에 거주하는 민(전)혜경 동문(화학과 67·사진)이 지난 8월29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전 동문은 1947년 7월12일 5남매중 셋째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숙명여고를 거쳐 모교 화학과를 나왔다. 1972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브라운 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했고 물리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함께 유학생으로 선발된 민병곤(공대 65) 동문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1976년 장남 데이브를 낳고 코넬대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았고 1979년에 차남 앤드루를

출산했다. 전 동문은 실리콘 밸리 반도체 업계에 진출한 초기 여성 엔지니어이자 임원 가운데 한 명으로,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를 거쳐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고위직까지 올랐으며 은퇴할 때까지 근무했다. 가족들은 전 동문이 전문직 여성으로 활발한 경력을 이어가면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함께 해낸 당시의 대표적인 ‘수퍼맘’이었다고 회고했다.

전 동문은 북가주 동문회 이사과 미주동창회 종신이사였으며 부군 민병곤 동문은 북가주 동문회 이사를 지냈다. 장남인 데이브 민은 현재 연방 하원의원이고 차남 앤드루는 소아과 의사다. 장례예배는 지난 9월10일 LA에 소재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글=장병희(인문대 86) 편집위원

고 정(김)명희(간호대 71) 선배님을 추모하며

고 정명희 선배님을, 반짝이는 검은 긴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늘씬한 멋진 사학년 언니로 마음 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긴 머리를 없애고, 몇 십년 만에 푸근한 중년의 모습으로 저희 집을 찾아 왔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부겐벨리아 붉은 꽃들이 울타리에서 넘쳐 흐르듯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은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흐드러지게 나누었지요. 함춘원의 정원과 점프 시간과 방짜들의 이야기 하며... 점점 서늘해지는 저녁 공기에 머플러를 두르고, 미국에서 살아 온 진지한 삶의 이야기를 늙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실천하며 사는 plan A의 삶은 인간의 삶이고, 우연으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어 살게 되는 plan B의 삶은 신이 정해주신 고귀한 삶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저녁에 우리가 받은 고귀한 삶의 귀중함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간호사로서,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에 미래를 걸고 살아 온 고단했지만 좋은 결실을 맺은 plan B에 대하여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골목을 떠나가는 선배를 배웅했습니다. 그 후 선배는 동창회에 열심을 보이며 여러 동창 모임에 참여해



왔으며 이사직도 맡는 등 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래에 이화여고 합창단으

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선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남가주 동창회에 다니던 길이 이제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새벽 마다 그리피스 파크에 오는 등 정말 하루 하루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간단한 어조로 분명하게 하던 의사 소통이 선배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떠나갔지만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나 간다! 잘 있어!”라고. 선배님의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황망함을 금치 못하나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소서. 고 정명희 선배는 LAC+USC Medical Center Women’s clinic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은퇴하여 유족으로 일남일녀와 손주들을 두었습니다. 장(김)동옥 남가주 간호대 동창 회장

이전구 제9대 미주동창회장 부인상

제 9 대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한 뉴욕의 이전구(농대60) 동문의 부인 이희정 여사가 지난 9월 19일 별세했다. 장례 예배는 9월 27일 가족과 친지, 서울대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저지 소재 중앙장의사에

서 거행됐다. 이날 장례식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를 표했으며, 윤상래 제 14대 미주동창회장과 신용남 제 15대 미주동창회장이 참석해 이전구 전 회장과 유족을 위로했다.

LA 한인회장 지낸 김죽봉(문리대 54) 동문 별세

1980년대 LA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죽봉(문리대 역사학과 54) 동문이 지난 9월 초 별세했다. 향년 92세. 평북 강계 출신인 고인은 1958년 도미해 USC를 졸업했으며, 미국 금융권을 거쳐 철강, 목재 등 무역업을 하며 한국 산업화에 기여했다. 말년에는 앨라배마주에 거주하며 AIA 리사이클링 고문 등을 맡았다. 고인은 2018년 과란만장했던 자신의 84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서전 ‘나의 하나님, 고난의 바다 위에서 본 별빛’을 출간했다. 자서전에서 학도병으로 전투에 참전해 총상을 입은 후 부산 피란민 시절 서울대에 진학한 이야기부터, 5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이민해 USC를 졸업하고 철강사업자로 성공을 거두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파산의 시련

을 딛고 다시 일어난 이야기까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눈 앞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라는 삶의 메시지를 남겼다.



➔ 지속 가능한 축산 기술을 가르치는 ‘염소 5개년 농업 확장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저는 ESL 수업, 성경 공부,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곧 우리의 노력이 다른 한국계 미국인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의사, 과학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공식적으로 ‘GM Net(과테말라 선교 네트워크)’을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과테말라의 대학교수와 학생 7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2년간 새마을(새로운 마을) 농촌 개발 모델을 배우도록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두명은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또 한 명은 GM넷의 핵심 교수이자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과 협력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외딴 마야 원주민 마을에 의료 센터를 건립했으며, 과테말라 보건부 장관 및 대학 총장과 함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진료소 주변에 가정용 가금류 사육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완전한 자선에서 50/50 공동 투자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권과 자긍심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실내

에서 불을 피워 조리하는 관행으로 인한 만성 호흡기 질환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굴뚝이 설치된 환기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건설했습니다. 에필로그: 디아스포라의 비전 지난 5월, 저희는 애틀랜타에서 첫 번째 GM 넷 포럼을 개최하여 핵심 팀원들과 함께 "빵, 복음, 그리고 치유를 실천으로 옮기다"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재 저희는 발표 내용을 책으로 엮어 전 세계와 저희의 통합적인 팀 사역 모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GM Net은 11명의 핵심 리더들이 이끌고 있으며, 그중 7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입니다. 이 7명 중 3명은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각각 미술, 의학,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팀의 아티스트는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뉴스레터와 웹사이트를 제작하며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젊은 시절 심었던 '진실이 곧 나의 빛'이라는 씨앗이 중앙아메리카 산악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하나의 힘으로 꽃피운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비록 저는 물리적으로는 펜실베이니아에 살

고 있지만, 제 마음의 75%는 항상 과테말라에 있습니다. 90세이신데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졸업생 선배님을 보면, '이 비전을 계속 키워나가려면 90살까지는 충분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저는 현재 '하이브리드 비거주 현재 임무'라고 부르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1년 내내 그곳에 물리적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줌(Zoom)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은퇴한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즉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연속성을 바탕으로 현지 학자들을 교육하고 중요한 실험 장비를 기증하기 위한 연례 방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꿈은 은퇴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거대한 상호 연결망을 구축하여, 인생의 황혼기를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꿈속에서 살고 있으며, 수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종로 거리에서 저를 찾아온 바로 그 진실과 빛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동문님의 '기부'가 미주동창회를 만듭니다.

성함, 기부액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손창수 재무국장 : 320-224-8276

Check payable to: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Character illustrations by Storyset

■ Key Initiatives

EDUCATIONAL

차세대 인재를 위한 교육과 장학사업

CHARITABL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NETWORKING

세계를 잇는 동문 네트워크 구축

남가주 동문들 가을 여행, 파소로블레스서 추억 쌓아

9월 12~13일 버스 대절해 1박 2일, 빛의 정원과 와인너리 방문

서울대학교 남가주총동창회 동문들이 9월 12~13일 캘리포니아 파소로블레스로 1박 2일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당초 애크트 코스트 스타라이트 열차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기차편이 갑자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절 버스 여행으로 일정을 바꿨다. 이동 수단은 달라졌지만, 동문들은 여러 명소를 함께 둘러보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행에는 의대, 간호대, 공대, 사대, 미대, 음대, 농대, 문리대, 가정대 동문들이 참여했다. 동창회가 전한 행사 보고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기차를 타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도 버스 이동이 오히려 편안했다고 평가했다.

첫날 저녁의 중심 일정은 파소로블레스의 야외 빛 예술 전시장 센소리오(Sensorio) 방문이었다. 해가 지자 언덕을 수놓은 조명이 색을 바꾸며 넓은 들판을 빛으로 채웠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꽃 들판으로 바뀌어 황홀한 불빛 속으로 불잡아, 참가자들이 불꽃이 되어 피어나는 듯했다. 동문들은 미리 마련된 식사를 함께한 뒤 야외 작품 사이를 거닐었다. 참가자들은 전시장 전체를 둘러보는 등 많은 동문에게 새롭고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이튿날에는 캐스 와인너리(CASS Winery)에서 점심과 와인 시음을 즐겼다. 김자성 의대 동창회장이 우쿨렐레를 연주하자 동문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행사에서 와인너리 방문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기도 했다. 또 김자성 동문은 “참가 인원 38명중 18명이 의대에서 참가해 선후배들의 우정이 돈독해져 더욱 좋았다”면서 “오고 가면서 싱얼롱에 적극 참여해주고 추억의 7080 느낌이 좋았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술뱅의 거리와 모로 록



남가주 서울대 동문들이 모로 록 앞에서 동창회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파소로블레스 센소리오의 빛 작품을 배경으로 동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은 버스 안에서 싱얼롱 연주하는 김자성 동문. 남가주 동창회 제공



(Morro Rock), 마돈나 인도 둘러본 뒤 남가주로 돌아왔다.

여행 내내 우쿨렐레 연주로 흥을 돋운 김자성 동문을 비롯해 주치를 도운 이현림 사업국장 등 여러 동문의 손길이 일정을 뒷받침했다. 양수진 남가주총

동창회장은 “2030년 애크트 노선이 없어진다고 해서 기차여행을 기획했지만 취소돼 매우 서운했다”며 “동문 선후배님들이 그래도 강행을 원하셔서 진행됐다. 모두 너무 좋다는 반응으로 기획한 임원들도 편히 다녀온 즐거운 시간이었

다”고 말했다.

기차 여행이라는 처음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버스 안팎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동문들에게 새로운 가을 추억으로 남았다.

글=장병희(인문대 86) 편집위원

젊은 동문들과 함께한 수목원에서의 가을 피크닉

미네소타 지부

미네소타 지부는 9월 26일 미네소타대학 수목원에서 가을 피크닉을 가졌다. 26일이 한국의 추석 연휴와 겹치는 주말이어서 다 같이 모여 추석 분위기를 내보는 자리로 마련하였고, 비가 약간씩 내리는 날씨였음에도 50명에 가까운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상당히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

수목원에서의 가을 피크닉은 지난해 처음 시도했는데 작년엔 4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했고, 올해는 참석 인원 거의 전부가 80년대 이후 학번들로 젊은 동문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행사가 되었다.

미네소타대학은 트윈시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만 수목원은 약 25마일 떨어진 남서쪽 외곽에 있어 대학에 계신 분들도 평소 자주 찾기 힘든 곳이다. 가을 피크닉은 동문과 가족들이 아름다운 수목원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미네소타 동문들이 지난 9월 26일 미네소타대학 수목원에서 가을 피크닉을 열고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김밥, 모듬전, 잡채와 송편까지 곁들인 식사로 명절 분위기를 냈고, 비가 살짝 오는 날씨가 오히려 동문들을 picnic shelter 안에 머무르도록 해 동문들이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

특히 새로 참여한 동문들을 비롯해 학생동문들의 참여가 높아, 재미있고 유익한 모임이라면 젊은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전체 행사는 12월 5일에 열리는 연말총회로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즐거웠던 가을 피크닉을 마무리했다.

글=문성인(공대 88) 지부 회장

웃음·노래·장기자랑으로 하나 된 하트랜드 동창회

신임 회장 노정희 동문, ‘미주동창회 나눔실천상’ 첫 수상 영예

서울대학교 하트랜드 동창회가 9월 19일 토요일, 쉐라톤 오버랜드파크 호텔에서 제27차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진지한 총회로 시작해 흥겨운 장기자랑으로 마무리된 이날 행사는, 그야말로 “낮에는 회의, 밤에는 무대”라는 하트랜드 동창회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준 자리였다.

구명순 이사장(간호대 66)의 개회 인사로 막을 올린 정기총회에서는 이주현 회장(미대 92)이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송년의 밤을 시작으로 설날 모임, 봄 소풍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 6월에는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에서 열린 제35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도 참석해 존재감을 뽐냈고,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공로패까지 받아 그야말로 '1년 개근상'을 받은 셈이다.

이어진 재무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모두가 기다리던 장학생 선발보고 시간. 이치현 장학위원장(약대 77)은 2026년 서울대 장학생으로 오민영(UMKC), 호주미(드렉셀대학교), 박장미(보스턴대학교) 학생을 호명하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민영 학생은 직접 참석해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나머지 두 학생은 이미 개강한 관계로 영상 편지를 보내와 아쉬움 반, 기특함 반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노정희 동문(음대 86)이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황호숙 회장으로부터 나눔 실천상(상패와 상금)을 수상하며 첫 수상자를 하트랜드 지부에서 배출하는 영광까지 안았다.

노정희 동문의 나눔은 한마디로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남을 위해 꾸준히"였다. 음악대학에서 갈고닦은 피아노 실력을 개인적인 성취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로, 시니어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으로, 지역사회에는 따뜻한 나눔의 통로로 아낌없이 나눠왔다.

그의 활동 반경 또한 놀랍도록 넓다. 코스타리카에서의 저소득층 의료·교육 봉사를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의료·교육·음악 봉사, 그리고 현재는 캔자스 지역 시니어들을 위한 음악·교육 봉사까지,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어지러울 정도의 이동 반경이지만, 어디를 가든 나눔만은 한결같았다.

여기에 이사회 추천과 총회 인준을 거쳐 하트랜드 동창회 차기 회장으로



하트랜드 동문들이 지난 9월 19일 쉐라톤 오버랜드파크 호텔에서 열린 하트랜드 동창회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 행사에 참가해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신임 회장에 선임된 노정희 동문(왼쪽)이 미주동창회가 수여하는 나눔실천상을 받았다. 오른쪽 사진은 장학금 전달식 모습. 하트랜드 동창회는 올해 장학생 3명을 선발했고 이날 이치현 장학위원장(오른쪽)은 오민영 UMKC 학생(가운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왼쪽은 이주현 하트랜드 지부 회장.



도 선임되며, 노정희 동문은 하루 동안 "상 받고, 회장 되고"라는 겹경사를 누렸다. 그리고 이 겹경사에 만족하지 않고 곧이어 열린 장기자랑에서도 무대를 휩쓸며 '삼관왕'의 저력을 과시했다.

저녁식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문의 밤에는 다채로운 발표와 공연이 이어졌다. 김경운 동문(사00)은 '청령포 방문기, 그때와 지금'이라는 주제로 청령포 이야기를 풀어냈다. 영화 '왕의 남자' 흥행 이후 청령포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는 사실을, 3년 전 여행과 올해를 비교하며 유쾌하게 전했다. 한국을 방문할 동문들에게는 "청령포도 한번 둘러보라"는 은근한 여행 추천까지 잊지 않았다.

이날 장기자랑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가족들의 총출동이었다. 노정희 동문은 가족과 함께 "독도는 우리땅"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며 신명 나는 춤을 선보여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임소연 동문(음대 91)은 '아름다운 나라'를 열창하며 청중의 마음을 울려 2등에 올랐고, 공동 3등의 영예는 김경운 동문의 두 자녀, 태권도로 무대를 압도한 김이안과 노래 실력을 뽐낸 김이담에게 돌아갔다. 어린 동문 2세들의 등장에 객석에서는 "다음 세대로 든든하다"는 흐뭇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동문 일곱 명이 의기투합한 테너 합창단 "Mysterious"는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해 인기상을 거머쥐었다. 이름

값 한번 제대로 하며 무대 위에서 신비로운(?) 하모니를 선사한 이들 덕분에 객석은 그야말로 후끈 달아올랐다.

노래, 춤, 태권도, 합창까지 - 장르 불문의 종합 예술 무대가 펼쳐진 이날 장기자랑은 동문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트랜드 동창회만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행사의 대미는 동문들이 다 함께 부른 '고향의 봄'이 장식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진지한 총회로 시작해 새 회장을 맞이하고, 가족과 함께 노래하며 마무리된 제27차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은 하트랜드 동창회 역사에 또 하나의 유쾌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글=이주현(미대92) 지부 회장



정기총회에 이어진 동문의 밤 행사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동문들. 동문 7명의 테너 합창단이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하고 있다. 오른쪽은 '독도는 우리땅'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며 신명나는 춤을 선보인 노정희 가족.

플로리다 동문들, 모처럼 골프 회동하며 정겨운 만남

플로리다 지부

플로리다는 동문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지역적 분산과 연령의 고령화로 동문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8일 적은 숫자지만 모처럼 몇몇 동문들이 모여 작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Palm Beach National Golf Course에서 부산대 동문회와 합동으로 하계 골프 행사를 치른 뒤 한인 식당에 모여 간단한 회식을 겸한 뒤푼이를 했다.



플로리다 동문들이 모처럼 골프 모임을 한 후 식당에 모여 기념 사진을 찍었다.

조동건 지부 회장은 글과 사진을 보내면서 “너무 소규모라 기사거리가 안 되겠지만, 동창회보에 실리면 플로리다 동문들에게 깜짝 뉴스가 될 것 같아 보낸다”면서 소식을 전해왔다.

조동건 회장은 “많은 인원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동문들이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을 다지는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만남이나마 플로리다 동문들 사이에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조동건(법대 65) 지부 회장



워싱턴DC 지부 동문들이 지난 9월 12일 메릴랜드 포토맥에 위치한 Carderock Recreation Area Pavilion에서 '2026 동문 가족 가을 피크닉'을 개최하고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동문 가족 가을 피크닉, 정겨운 만남과 세대를 잇는 교류

워싱턴 D.C. 지부

서울대학교 워싱턴 DC. 동창회는 지난 9월 1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메릴랜드 포토맥에 위치한 Carderock Recreation Area Pavilion에서 ‘2026 동문 가족 가을 피크닉’을 개최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동문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별한 게임이나 복잡한 프로그램보다는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는 비가 내릴 듯 다소 흐린 날씨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구름이 따라온 햇살을 가려주는 덕분에 야외 피크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서 동문과 가족들은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삼삼오오 이야기를 꽃피웠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의 반가운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피크닉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참석자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중심으로 한 테이블 배치였다. 동문들이 졸업한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자리를 마련한

초등학교 지역별로 자리 배치해 추억 나눠 ‘선배님의 말씀 코너’ 통해 삶의 지혜도 공유

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학창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테이블마다 강냉이, 떡볶이, 쌀 튀기, 삶은 밤, 팽튀기 등 주제에 맞는 옛날 군것질들을 준비해 분위기를 한층 살리는 역할을 했다.

어린 시절 살던 동네와 학교, 당시의 친구들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니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여러 지역 가운데서는 서울 강북 지역 출신 동문들이 단연 많은 수를 차지했다. 같은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은 세대를 넘어 동문들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중에는 오인환 전 미주총동창회 회장이 미주 총동창회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미주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동문회의 활동과 소식을 함께 나누며, 워싱턴 DC. 지부를 넘어 미주 전체 동문 사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매 행사 때마다 멀리 살러츠빌에서 약 4시간을 운전해 참석하고 있는 조재중 동문(의대 73졸)은 ‘선배님의 말씀’ 코너를 통해 미국에 오게 된

계기와 수련의 과정을 마친 뒤 직장을 찾던 당시의 경험을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오랜 세월 미국에서 생활하며 쌓아온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준 조 동문의 이야기는 후배 동문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선배의 삶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동문회만의 따뜻한 정서를 느끼게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동문회에 가입한 동문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홍주민 (기계 18), 배정희(사회복지 05), 김연학(기계 03), 박한준(기계 대학원 17) 동문이 차례로 소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새로운 동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오랜 동문과 새롭게 합류한 동문들이 한자리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동문회의 인연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에는 참가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행사장 앞에 자유로운 기부함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으며, 각 테이블별로 모금액을 모아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순서도 마련되어 소소한 즐거움을 더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함께 행사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참여

하는 모습 속에서 동문들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가을 피크닉은 별도의 게임을 진행하지 않고 식사와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근황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 인연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라는 하나의 인연으로 만났지만 각자의 삶의 여정은 서로 달랐던 동문들. 그러나 오랜만에 마주 앉아 어린 시절의 기억과 미국에서의 삶,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사이의 시간과 거리는 어느새 사라졌다.

이번 가을 피크닉은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자체가 가장 소중한 프로그램이었던 행사였다. 동문들은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워싱턴 DC. 지역 동문 사회가 지닌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워싱턴 DC. 지부가 봄과 가을의 가족 야유회를 비롯한 다양한 만남의 자리를 통해 동문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만나고, 세대를 넘어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취재=한정희(미대 81) 편집위원



Festival posters on Rue de Médran, July 2026. From left to right: James Gaffigan, Martha Argerich, Alexander Kantorow, Renée Fleming, and Yunchan Lim. With Minsoo Sohn at the Verbier Festival.

Ten Days in Verbier: Where Music, Alpine Beauty, and Daily Life

Kang Edward (Education'60): A Journey to the 2026 Verbier Festival

My wife and I still carried many beautiful

memories of Swiss towns, chocolate shops, opera house and concert hall, lakes, and mountain landscapes from the several previous trips, but this trip to Verbier offered something different: ten days in a village where music, alpine beauty, and daily life seemed to meet naturally.

When we arrived at Geneva Airport, our car service agent was already waiting. After brief introductions and loading our luggage into the trunk, our driver began the two-hour trip to Verbier. As our driver drove along the winding road toward Verbier, I admired the looming alpine scenery: mountains rising above us, rivers glistening below, and small villages scattered across the valleys. As the car climbed higher, the Swiss landscape opened beneath the clear summer sun. Sheep grazed peacefully on alpine slopes, while the villages below looked like small, picturesque tapestries. Many peaks were still capped with stunning white alpine glaciers.

When we finally reached Verbier, I was struck by the contrast between the quiet grandeur of the surrounding mountains and the cozy elegance of the village, alive with the nascent festival excitement. Residences, shops, and hotels lined the streets, yet every building shared the same traditional chalet style, built with traditional Swiss dark wood and stone. Nothing competed for attention or tried to outshine the alpine landscape.

Festival banners reading “BIENVENUE 2026 VERBIER” and posters featuring celebrated artists welcomed visitors. The hotel’s contemporary, refined interior provided a pleasing contrast to Verbier’s traditional chalet-style exterior. From our balcony, an expansive and panoramic view of the alpine village was waiting for us. Countless gondolas moved steadily between Le Châble, and Verbier, where our hotel stood.

Verbier is known not only for



Kang Edward with his wife during intermission.

its beauty, but also as one of Switzerland’s most celebrated winter ski resorts. Its dramatic slopes and sweeping mountain views have attracted skiers from around the world. Areas such as Mont Fort and Tortin are famous for challenging runs. Even in summer, Gondolas move steadily up the mountains, and the surrounding peaks capped with white glacier even under summer sun.

Morning Walks on Rue de Médran

In the mornings, we walked leisurely along Rue de Médran, Verbier’s quiet main street, wearing light puffer jacket and light blue tailored jean. Morning seemed to belong to nature and the mountains. Young people were already gathered at al fresco cafés and restaurants, while summer hikers passed by with backpacks, walking poles, and mountain-hike bikes.

During the Verbier Festival,

colorful banners and posters decorated Rue de Médran, celebrating composers from Vivaldi and Bach to contemporary performing artists such as Yunchan Lim and Martha Argerich.

What was especially delightful was seeing benches, chairs, rocking chairs, lounge chairs, and chaises generously placed outside the shops, inviting walkers to rest, breathe the fresh mountain air, and enjoy the beauty of the surroundings.

Quiet Elegance and Alpine Luxury

Verbier is an exclusive ski resort village. Its character can be felt in its high prices, elegant buildings, and refined services. The chalets, hotels, shops, restaurants, and private residences all seem carefully placed within the mountain setting, creating an atmosphere of quiet luxury and restraint, all without the aggressive display often found in larger cities.

As I walked Along Rue de Médran, I felt that luxury in Verbier was not meant to impress by excess, but to become part of the village’s quiet visual harmony.

At times, Rue de Médran reminded me of Madison Avenue in Manhattan, or of Avenue Montaigne and Rue Saint-Honoré in Paris, where luxury forms part of the daily landscape. Yet Verbier felt very different from those city streets. In New York or Paris, elegance is surrounded by gilded beau monde and the constant energy of urban life. In Verbier, elegance was softened by the looming serene mountains. It is also well known that some celebrities, international artists, and members of European royal families have owned or rented chalets in Verbier during winter season. Verbier felt fashionable but private, privileged but not theatrical. At the same time, Verbier did not feel closed or unwelcoming. Anyone who came with curiosity and appreciation could share in its atmosphere.

Festival

Each morning, I read the Verbier Festival’s daily paper, Le Quotidien, over coffee to plan our day. It listed schedules, venues, concert times, and brief notes about the performers. Reading Le Quotidien in the morning gave me pleasure.

Salle des Combins, the festival’s largest concert hall, seats more than 1,500 people. From every seat, the sightlines were clear and unobstructed, and two large screens with helpful surtitles. The acoustics gave the music clarity, depth, and warmth. Unlike many famous European concert halls, Salle des Combins had





With Yunchan Lim at the Verbier Festival. The iconic “VERBIER” wooden sign with the majestic Swiss Alps in the background.

Seemed to Meet Naturally – An Unforgettable Experience

➡ no ornate walls, chandeliers, or luxurious carpets. It is a temporary venue, erected and dismantled each year, yet it was fully equipped for serious musical performances. One evening, during a heavy rainstorm, we could hear rain striking the roof that was designed to block out strong wind or heavy rain. Rather than distracting me, the sound drew me more deeply into the performance. It became an unforgettable Verbier experience.

Among the artists we attended were violinist Daniel Lozakovich; pianists Yunchan Lim, Minsoo Sohn, Evgeny Kissin, and Andrés Schiff; and soprano Renée Fleming. Each performer brought a distinctive character to the festival. Some concerts impressed me with technical brilliance, while others moved me through tenderness, elegance, or quiet emotional power. Many performances we saw were conducted by Lahav Shani. The festival also featured dozen other world-class artists.

The concerts were the heart of our journey. Founded in 1994, the Verbier Festival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classical music festivals, but what impressed me most was not only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but also its setting. It was the way music seemed to fill the entire village. During our previous trips to Switzerland, my wife and I had often planned our days around museums and galleries, followed by concerts in the evening. In 2017, for example, we attended

Mozart’s Die Zauberflöte at the Zurich Opera House and heard Beethoven’s Symphony No. 9 at the Zurich Tonhalle. The music stayed only during the performance venues.

Yet hearing great musicians in Verbier felt different. There, music was not separated or discrete from its surroundings. It seemed to be continuously in conversation with



Kang Edward playing golf against the breathtaking backdrop of the Swiss Alps.

the mountains, the clean alpine air, and the quiet rhythm of the village. In Verbier, the experience felt more continuous, from morning to the evening when we returned to hotel. Coming to a festival in the Alps is not the same as going to a traditional concert hall in a large city. In Verbier, extraordinary music, mountain scenery, and village life came together so naturally. I realized that the Verbier Festival was not simply a destination. It was a harmony of place, music, friendship, and time. The festival is a beautifully orchestrated symphony. I felt that evenings in Verbier belonged entirely to music.

Golf in the Alps

Since arriving in Verbier, I had been looking for the right day to play golf in the Alps. Each day, I checked our schedules, including my wife’s plans, to see whether there might be a good time. I wanted the experience to be memorable not only as a round of golf, but also as a chance to enjoy the mountain landscape. For example, I still remembered playing with my wife at the Monte Carlo Golf Club, set high in the rugged hills above Monaco with beautiful views over Monte Carlo. Finally, the right day

to play golf came.

I rented clubs, bought a few extra balls, and set out with a feeling of confidence mixed with excitement. The fairways rose, dipped, and turned with the mountain itself. There was almost no flat ground anywhere. Some holes seemed to disappear over ridges.

Many holes were blind but provided the white direction guide sticks. A well-struck ball could be rewarded by the slope, but a careless shot could easily be carried away by the mountain contours. The golf course was built into the alpine slopes, and from the first tee I could see that this would not be an ordinary round. The challenge was part of the beauty. Simply the course was not friendly.

My round began memorably when I made par on the first hole, giving me confidence for the difficult holes ahead. By the end of the day, I had made four pars and one birdie. On the par-69 course, I scored 84, or 15 over par, which meant I had beaten my age. It was July 28, 2026. I asked another player to sign my scorecard as a witness, and he wrote one simple word: “Bravo.” That single word captured the happiness of the moment. It was the second-best score of my

45 years of golf. Thrilled, excited, and deeply grate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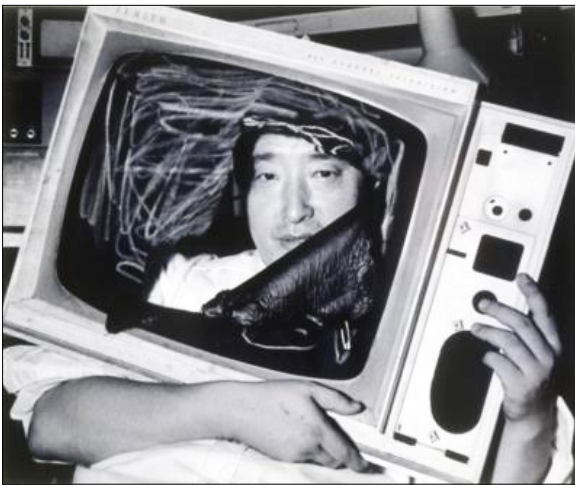
Conclusion

I realized that although I had come to Verbier initially for the music, I was leaving with something more, broader and deeper. Before the trip, I expected beautiful concerts, famous artists, and memorable performances. All those expectations were fulfilled. Yet as the days passed, I began to understand that the festival was not only a series of musical events, but also a complete experience shaped by place surrounded by the craggy and verdant alpine, idyllic and serene atmosphere, and peaceful and tranquil daily rhythm that took place in the village.

What made Verbier unforgettable was the way everything seemed to belong together. I remember the morning walking along the peaceful, and festive Rue de Medran, the white glacier-covered peaks, the traditional Swiss chalets, countless gondolas gliding up and down against the high white glacier-capped peaks. Sheep grazing on the steep alpine hillsides, the magnificently and clandestinely standing mountains, the Alps’ panoramic view and the cool night air on the hotel balcony.

In Verbier, music did not stay inside the concert hall. It seemed to drift through the village, along the mountain paths, and into the clear alpine sky. This is why this journey touched me so deeply. It gave me artistic pleasure through the performances, but it also gave me peace through the surroundings and gratitude through the people who shared the experience.

The mountains gave the journey its beauty; the music gave it meaning. Surrounded by alpine beauty, inspired by extraordinary music, and challenged by a memorable round of golf, I found an experience I will always treasure.



TV를 예술의 매체로 활용한 백남준이 1983년 뉴욕에서 TV 화면 안에 자신의 얼굴을 넣은 모습을 찍은 사진. 오른쪽은 1989년 제작한 비디오 설치 작품 'TV is New Heart'와 1993년작 'More Log In, Less Logging', 1974년작 'TV 부처'.

백남준, 한국이 낳은 세계적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김광현(미대 57·뉴욕)

비디오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백남준은 일본의 강점기인 1932년 7월에 한국의 경기도에서 출생하였으며 2006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73세까지 살았다.

그가 예술가로서의 작품 활동과 세기적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를 '비디오 아티스트', '행위미술가', '해프닝 및 전위 미술가', '설치미술가'(Installation Artist) 등 미술 분야 외에 '전위음악가' 및 '플럭서스 음악가'(Fluxus musicum; 1960~1970년대 국제적 전위예술의 활동 유행)로 폭넓은 미술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다.

백남준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피아노 연주법을 배우고 당시 한국의 톱 작곡가인 김순남을 사사했다.

백남준은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1949년 한국전쟁 발발 전 홍콩에 설립되었던 사립 국제학교인 로이덴 하우스 스쿨(Royden House School)을 거쳐 1952년 도쿄대학 문과에서 미술사와 미학을 전공했으며 작곡과 음악사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했고 20세기 최고 혁신 작곡가,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imberg)에 심취되어, 대학교 졸업논문 주제도 '아놀드 음악에 관한 연구'로 백남준이 후에 미술이나 음악의 전통적 양식이나 개념을 넓게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6년 그는 큰 결심을 하여 독일의 뮌헨 및 뮐른 대학에서 서양의 건축, 음악사 및 철학 분야의 연구에 심취하였고, 1958년 현대음악의 실험과 그 표현이 활발한 독일의 담슈타트(Darmstadt)시로 이동하여 그 시대 미국의 현대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를 만나 음악의 파괴적 접근과 자유정신적 감명을 받았으며 백남준을 '아시아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라 부르기도 했다.

1959년, 백남준은 미술과 음악 분야를 결합한 탁월한 전위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그가 현대음악가 존 케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 1986년 과천 미술관 개관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1988년 10월 작품이 완성돼 가동을 시작했다. 작품에 사용된 브라운관 모니터 1003개는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지를 만난 후 독일 뒤셀도르프 화랑에서 보여준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Homage a John Cage)를 위해 '바이올린 솔로' 연주의 행위 퍼포먼스는 고전음악과 다양한 소음인 잡음까지 결합한 오디오 콜라주 테이프를 틀고 무대의 피아노를 연주하며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충격적 행위의 TV 시청을 보여주어 전통음악의 위상을 파괴했으며 고전적 악기인 피아노를 파괴하고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으로 케이지가 매고 온 넥타이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행위 등 기존 질서와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충격적 행위예술가로 평판을 얻게 되었다.

1961년 백남준은 슈토크하우젠(Karl Stockhausen, 20세기 전위, 전자음악 선구자)의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 전자공학 분야를 공부하며 2년간 TV를 활용한 미디어 기술을 실험, 1963년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 화랑에서 그의 첫 번째 '음악의 전시-전자 TV' 전시회(Exposition of Music

Electronic TV)를 열었다.

백남준의 세계 최초의 이 Video Art 전시회는 TV 13대와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들을 결합한 전시로 관객들도 소리를 내어 TV 화면에 참여하고 기계들을 만지며 TV 화면을 조절할 수 있도록 참여예술성을 주었고 TV는 단순한 방송 수신기가 아닌 예술 창작의 도구로 탈바꿈할 수 있음도 암시했다.

1964년, 백남준은 일본으로 가 로봇 K-456을 제작하며 뉴욕으로 이주하여 영상 작업을 진행하며 교향바오로 6세를 촬영, 그 영상을 '카페 오 고고'에서 방영하였고 1974년부터 미술과 음악성의 혼합으로 뉴욕의 WNET 방송국과 보스턴 WGBH 방송사를 통해 그

의 Video 작품을 공중과 TV로 방영해 많은 작가들의 작품 소개로 2천 500여만 명이 시청하는 기록을 세웠고 1988년 당시 한국에서 개최한 올림픽 '손에 손잡고' 주제를 위성아트(Satellite Art)로 제작, 세계적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제1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멀티미디어 아트쇼에서 108개의 TV를 통해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불교의 '108년의 번뇌'로 표현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103개의 TV를 쌓아 올린 '다다익선'의 작품을 제작,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배치도 했다.

또한 1995년, 그는 제1회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토록 한 계기로 TV 시청, 160만 명이 관람하기도 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설치로 한국 미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계적 Video 미술작가로 자리한 그의 작품들을 소개해 본다.

1. 행위 미술: 피아노 포르테를 위

한 연습곡(1959), 존 케이지의 경의(1960), 오리기날래(1961), 작은 여름 축제-존 케이지 이후(1962), 페스티벌 플럭서스 플럭서스(1963), 오페라 섹스트로닉(1967), 살아있는 조각 TV 브라(1969).

2. Video 미술: 버튼 해프닝(1965), 전자 오페라 #1(1962), Video 코뮌(1970), Global Groove(1978), 머스바이 머스바이 백(1975), 과달카날 진혼곡(1977), 108번뇌(1998).

3. 위성 미술: 굿모닝 Mr. Howell(1984), 바이 바이 키플링(1986), 손에 손잡고(1988), 호랑이는 살아있다(2000), 달은 오래된 TV(1975), TV 사계(1975), 물고기가 하늘을 날다(1976), 다다익선(1988), 나의 파우스트(1989), 전자 고속도로 미국(1995), 라이트 형제(1995).

4. 초대 전시회: 전자 TV전(독일 1963), 비디오 앤 비디오로지(뉴욕 1974), 백남준 회고전(뉴욕 1982), Nam June Paik Mostly Video 전(도쿄 1984),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베니스 1993), 1995 예술과 통신(서울 1995), 백남준의 세계(뉴욕 2000), 비디오 광시곡(서울 1978), 백남준 상설전(서울 2009~), Global Visionary(미국 2012), Becoming Robot(2014).

5. 음악 작품: 영 페니스 심포니,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 교향곡 제5번,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 압쉬즈 심포니, 인 메모리암 조지 마키우나스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백남준이 세기적으로 성공한 미술 및 기술, 음악 및 건축성을 연결한 세계 최초의 Video Artist로 우뚝 섰지만 한편 행위미술의 표현이 외설성과 대중화에 침몰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그가 표출한 배경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 일본의 강점기,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새로운 분야의 학습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둘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등을 다니며 자신의 예술혼을 발휘했고, 셋째, 1600~2000년대, 디지털화 시대로의 진입, 문자와 분리한 음성 중심의 시대에서 현장감과 생동력을 주는 다중화 감각의 전달 표현 방법으로 시대적 흐름을 흡수, Video의 시각적 흡수성과, 음악의 청각성 및 Technology의 정확성을 융합한 행위 예술로 발전했고, 넷째, 예술가로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는 Contents를 섭렵한 노력으로 많은 작품을 제작했고, 다섯째, 한국인 고유의 잠재성과 예술성을 갖는 DNA 표출로 통합성의 표현으로 큰 좌표를 찍었다고 하겠다.

86세에 떠난 멀고 먼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선교 여행

영어로 나눈 ‘트레스 디아스’ 사랑의 섬김 감동



호민선(상대 59·하트랜드)

좋은 와인을 잘 마시는 데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한다. 제일 먼저, 병을 뜯 후에 냄새로 맛을 느껴 보고, 작은 양의 와인을 따라서 입안에 넣고 천천히 스월링(Swirling)을 하여 그 맛을 온 입안에 적셔 느껴 본 후에, 잔에 따른 와인을 천천히 마시면서 마시고 난 뒷맛까지 느끼는 게 서양 와인을 마시는 멋이라고 오래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났다.

좋은 여행도 세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떠나기 전, 지도도 찾아보고, 그 지역의 특성 등도 알아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도움이 된다. (물론, 내 아내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서프라이즈(Surprise)를 보는 게 더 재미있다는 분도 있다.) 둘째는 실제로 여행을 가서 그곳을 체험하는 것이다.

가급적 사전에 얻은 지식을 가지고, 그곳 어느 구석에 먼저 가고,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고, 어디에서 점심을 먹는 등등의 우선순위를 대충 정해 놓으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 같다. 셋째는 여행을 다녀온 후에 사진들도 인화하고 그 여행에 대한 감상문이나 여행기를 써서 사진 등과 함께두는 것이, 기억력이 좋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귀중하고 유익한 추억을 장래를 위해 남겨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태평양 한복판에 있지만 지구에서 제일 먼저 하루가 시작된다는 ‘땅끝 나라’ 피지(Fiji) 여행 및 선교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나와 아내는 거기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음과 몸의 준비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7,000여 마일 떨어져 있고, 17시간이나 우리보다 시간이 앞서 있는 남태평양의 90여만 명 인구를 가진 섬나라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선교를 다녀올 ‘땅끝’이라고 느껴졌다.

5년 전, 코로나(Corona)가 한창이던 시절에도 우리는 피지보다도 훨씬 먼(7,581마일) 두바이(Dubai, United Arab Emirates)의 16일 동안을 마지



호민선 동문이 리더를 맡은 테이블에 앉았던 현지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막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왔었다. 이제, 5년이 지나 만 86세가 되었는데, 피지를 가려면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음식도 잘 선택해서 먹으며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인 크리스천 18명이 함께 가서 공동 사역과 관광도 하는 스케줄로서 6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의 팀 훈련도 시작되었다.

8월 5일 오후부터 8일 오후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18명과 현지 선교사 세 가정(도합 24명)이 다섯 개의 부서로 나뉘어 37명의 현지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섬기는 ‘트레스 디아스(Tres Dias)’라는 프로그램으로 찬양, 묵상, 강의, 토론, 발표, 팀 경쟁, 식사,

간식, 휴식 시간을 잘 배합시킨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그들의 공용어인 영어로 모두 진행했다.

매 강의 테이블별로 토론과 포스터를 그려서 발표하는 것이 수강자들의 흥미, 이해,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며, 특히 성경을 주제로 한 ‘팀별 연극 경연대회’에서는 폭소도 터지는 의상과 몸짓, 대단한 연기력 등이 압권이었다. 기독교적인 문화와 박식한 성경 지식과 먼 곳에서 그들에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전해 주러 온 미주 팀에 대한 감사 등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24명의 팀은 찬양, 강의 및 테이블 토론 인도, 보조(Auxiliary) 팀, 주방 팀, 영적 지도자(Spiritual Directors), 기도 팀 등으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진행했고, 모든 것을

영어로 진행하는 어려움들을 잘 소화해 냈다. 클래식 음악에 비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감으로 케니 이(Kenny Yi) 목사님의 지휘로 연주한 긴긴 교향곡 연주를 감동 깊게 마쳤다고 자평한다.

졸업식에 해당하는 마지막 순서였던 ‘아포스톨릭 아워(Apostolic Hour)’-졸업생들에게 각각 십자가를 목에 걸어주며 목사님이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Jesus is counting on you)”라고 말하면, 졸업생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I am counting on Jesus)”라고 답례하여 모든 훈련생(Candidates)이 사람을 낚는 어부(Pescadores)로 승진되는 이 귀한 시간은 모두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그 후에 벌어진 깜짝 순서들이 우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에 대한 답례로 팀 한 명 한 명에게 호화롭게 장식된 피지 치마를 선물했고(영국 식민지 시절의 전통으로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 전통이 있음), 새로운 피스카도레스(New Pescadores)가 일제히 피지어로 ‘이 별의 노래’를 합창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였기에 어안이 병병하였다. 80년대 한국에서 유행주의 번안곡 ‘우리들의 이야기 : 이사레이(Isa Lei)’를 그 나라 말로 부르는 게 아닌가?

“웃음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없는 웃음이.... 라일락 꽃 향기를 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밤하늘에 별만큼이나, 수많은

왔던 우리의 이야기를...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잊지 않을 게요.....”

원곡이 피지의 ‘작별의 노래’였다는 걸 나는 뒤에 알게 되었고,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섬사람들이 애뜻한 석별의 정을 가득 담은 이 노래를 불러줄 때 우리 팀들의 가슴에 엄청난 감동의 파도가 일어났다. (나는 워낙 1960년대 말에 미국에 온 사람이라 이 노래를 잘 모르지만, 후배들과 모일 때 자주 들었던 익숙한 멜로디였다.

우리 팀을 구성한 대부분의 연령이 50~60대여서 1980년대를 한국에서 살았던 여러 팀 멤버에게는 이 노래가 엄청난 향수를 불러일으킨 게 틀림없다. 이역만리에서 이 노래를 듣다니.....)

피지 공화국(Republic of Fiji)은 뉴질랜드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1,300마일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로 총인구가 93만 7,000명쯤 된다.

피지에서 제일 큰 섬인 비티레부 섬(수바와 난디 및 그 사이 지역)과 주위의 몇 섬들을 관광했는데, 첫 행선지가 나시카바 비전 칼리지(Nasikawa Vision College)였다. 학생 330명의 기독교 사립 중고등학교인데, 대학 입시 준비반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칼리지(College)라고 부르고, 대학은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부른다.

캠퍼스 예배 및 학교 탐방 브리핑을 듣고, 청년 때 여기 와서 학교 설립에 동참하고 30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 50대 초반의 조남권 선교사 부부 등이 준비한 한식 점심을 먹고, 학생들과 사진도 찍었다.

8월 8일 트레스 디아스 프로그램을 끝내고, 팀과 선교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수도 수바 시내에 있는 중국 식당을 갔는데, 식당이 너무 작아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식당으로 갔다.

우리 부부가 비행기 표를 구입할 때 믹스업(Mix-up)이 생겨 동일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MCI) 왕복 난디(Nadi, Fiji)행이 더블 부킹(Double Booking)이 되었고, 두세 달 동안 엄청난 서류 싸움과 많은 분의 노력과 기도(특히 케니 이 목사님의 노력)로 약 75%를 기적적으로 현금 환불(Refund)을 받게 되었고, 그걸 감사하여 우리 부부가 팀과 선교사님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추가로 조남권 선교사님의 기탁도 새로 구입하도록 300달러를 현금했다.



뉴욕과 뉴저지, 캔자스에서 참여한 18명의 선교팀. 3박 4일의 트레스 디아스를 마치고 선교팀과 현지 선교사, 현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반평생의 숙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천양국
(의대 63·시카고)

이 특강은 미국의 독립 역사를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한인 이민 사회 또한 미국 역사의 주인이며 주역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권리도 누려본 사람이 이를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무엇이든 귀하면, 더 많이 갖고,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위협받으면 당연히 저항에 나섭니다.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남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을 살던 사람이 삶에 제약이 가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숨이 막히고 답답해질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의 북미 13개 식민지에 살던 주민들은 인구 수로는 세 배,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식민 통치국 영국에 대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년 2개월의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그 전해인 1775년, 미국 식민지 주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의 기본 사상은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그 누구도 빼앗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입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독립 사상은 간단 명료합니다.

국가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탄생시킨 것입니다. 물론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통치 권력이 앞의 결코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권리를 짓밟는 권력에 항거해, 자신들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더욱 공고히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혁명인데, 이는 권리를 넘어 책임이라고까지 독립선언서는 역설합니다.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의 권리를 파괴하는 통치 구조를 허물고, 그 위에 새로운, 즉 인간의 권리를 더 잘 증진하는 대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혁명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160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개척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자치와 자주입니다. 영국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3천 5백 마일가량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두 달에서 한 달가량을 항해해야 미국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모국인 영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지만, 실존은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정착지에 자치적 행정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고, 본국으로부터의 전령을 기다리는 대신, 법을 만들어 스스로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의 버지니아도 다르지 않았습니

다. 자치의 기본은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법치 국가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없는 자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과 자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창조주가 부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패한 권력 또는 위선적 통치란 자유를 빼앗은 상태에서 통치자가 제멋대로 정한 법에 의존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 없는 법치가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행복 추구(Pursuit of Happiness)”의 권리라는 새로운 정치 개념을 주창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서구에서 오래 사용되었는데 “행복” 이전에 “소유(property)”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본인의 판단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1600년대부터 한 세기 반 동안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650년 5만이었던 인구는 1750년 120만으로 늘었습니다.

경제 생산 면에서 미국은 상업 수출 농으로 빠르게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잉글랜드의 어업과 조선평, 뉴욕과 펜실베이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중간 지대는 곡물 창고라 해도 됩니다. 남부는 담배, 쌀, 염료를 만드는 인디고 등의 수출이 큰부를 창출했습니다.

언급한 대로 자작농보다는 활발한 상업, 수출농에 의존한 미국의 경제 구조 안에서, 소유를 통한 행복 추구에 반하는 개념 중 하나로 세금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행위와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을 방해하는 독소라 해도 됩니다. 싸고 넓은 땅으로 옮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개척”의 권리 또한 미국인들의 실존과 직결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미 대륙의 식민지 유지를 위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자 영국은 북미 식민지로부터의 세수(稅收) 증대를 꾀했고, 동시에 원주민들과의 충돌로 야기될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인들의 서부 이주와 개척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런던의 정책이 자신들의 자유와 실존을 위협한다며 “학정(Tyranny)”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혁명은 추상적 정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겼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7년 넘는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평등한 창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기둥이 되는 미국의 독립선언에는 흔히 미국의 “원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선언은 백인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당시 50만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쓴 토머스 제퍼슨에게는 175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노예를 사고팔았습니다. 그의 정부(情婦)인 흑인 노예 여성에게서 다섯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제퍼슨은 자신이 생부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순당여리입니다.

많은 흑인들에게 독립기념일은 미국 역사와 사회의 이중성을 상기시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는 독립선언 후 8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흑인들에게 평등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독립선언 250년이 지난 지금도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차별, 폭력은 사라지지않았습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표현대로 독립선언서는 흑인들에게 '부도수표'인 것이 맞습니다.

자유와 권리, 행복과 너무도 거리가 먼 노예 제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13개 식민지(주)들이 연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를 생존의 필수로 여겼던 버지니아를 위시한 남부주들이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1776년 미국 독립은 없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노예 소유 또한 백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미국 독립선언이 우리 동포 사회에 갖는 의미는 큼니다. 우리는 소수민족, 이민 집단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 신분이 상승해도 인종 편견, 차별,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COVID) 당시를 기억합니다. 동양계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서까지 합쳐져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편견, 폭력은 경제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민자들이 자신 있게 이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독립선언서의 정신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평등, 생명, 자유, 권리의 메시지가 흔히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Otherwise

Jane Kenyon

I got out of bed
on two strong legs.
It might have been
otherwise. I ate
cereal, sweet
milk, ripe, flawless
peach. It might
have been otherwise.
I took the dog uphill
to the birch wood.
All morning I did
the work I love.

At noon I lay down
with my mate. It might
have been otherwise.
We ate dinner together
at a table with silver
candlesticks. It might
have been otherwise.
I slept in a bed
in a room with paintings
on the walls, and
planned another day
just like this day.
But one day, I know,
it will be otherwise.

어젯밤 잠들기 전, 제인 케니언의 시 「어떤 하루」를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숲속 까마귀들의 짹 짹 소리에 눈을 뜨고 다시 읽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어젯밤도, 오늘 아침도 기적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운명의 원인으로 결과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신의 편지를 들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글= 박평일
(농대 69·워싱턴DC)

김학천의 세상만사 이야기



김학천
(치대 70·남가주)

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악보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다고 한다. 그에 게 악보는 단순히 작곡가가 적어놓은 음표의 집합이 아니었다. 오래된 악보에 남아 있는 누군가의 표시, 연필 자국, 수정 흔적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 한 시대의 음악가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갔는지가 그런 작은 흔적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버지니아대 학교에서 진행된 ‘Book Traces 프로젝트’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들을 살펴보고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찾아 기록하는 작업이었다. 연구팀은 10만 권이 넘는 책을 조사했다. 책의 내용이 아니라 여백의 메모, 밑줄, 낙서, 소유자의 이름과 서명, 편지와 사진, 꽃잎과 머리카락처럼 책 속에 남겨진 ‘사용의 흔적’을 찾아냈다.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다. 책의 본문만 디지털화한다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낙서나 종이 조각이 아니다. 누군가 이 책을 사랑했거나, 공부했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했거나, 어떤 순간에 꽃 한 송이를 끼워두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사라진다. ‘Book Traces’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들은 도서관의 목록에는 이미 존재했다. 저자와 제목, 출판연도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책 속의 독특한 흔적들은 목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검색으로는 찾아낼 수도 없었다. 말하자면 책은 존재했지만 책의 역사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Project Panama’라는 비밀프로젝트 폭로 보도를 접했다. 인공지능 회사 앤스로픽은 AI 학습을 위해 대량의 책을 구입한 뒤 제본을 잘라 페이지를 분리하고 고속스캔하는 이른바 ‘파괴적 스캔’ 방식을 추진했다. 책의 내용은 디지털 데이터로 남기고 원본은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책을 디지털화하고 지식을 보다 널리 활용하는 일에는 분명 커다란 가치가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존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스캔했다고 하자. 글자 하나, 그림 하나 빠짐없이 디지털 파일에 들어 있다면 정보라는 측면에서는 책이 완벽하게 보존된 셈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다윈의 책들을 생각해 보면 답은 조금 달라진다. 다윈은 자신의 책에 수많은 메모와 밑줄을 남겼고, 책 사이에 쪽지를 끼워 두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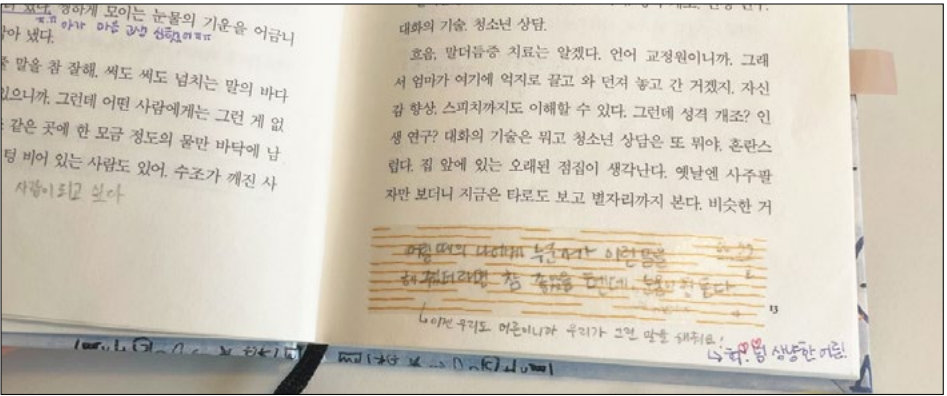
훗날 연구자들은 그 흔적들을 통해 그가 무엇을 읽었고, 어떤 생각을 발전시켰으며, 어떤 책에서 어떤 아이디어

어를 얻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다. 정보와 기록은 그래서 다른 것이다. 정보는 우리가 읽어낸 것일뿐이지만 기록은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것까지 포함한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낙서 한 줄이나 누군가의 서명, 접힌 페이지, 지워진 메모, 손때, 책갈피, 심지어 이름 모를 얼룩 등 우리가 아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흔적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Book Traces’가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이다. 기록의 가치는 기록하는 순간 모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훗날 누군가가 그것을 읽어낼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불현듯 ‘새로운 분서갱유’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진시황의 분서와 오늘날의 디지털화는 목적부터 정반대다. 진시황의 분서가 지식을 없애기 위해 책을 태운 것이었다면, 오늘

날의 디지털화는 지식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 같을 수는 없지만 다만 묘한 역설이 있다. 옛날에는 ‘책을 없애면 지식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다면 AI 시대에는 자칫 ‘지식만 추출하면 책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은 지식만 담고 있는 물건이 아니다. 책은 사람도 담고 있다. 누가 읽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그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책을 보존한다는 것은 책에 쓰인 문장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흔적까지 함께 간직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할 일은 ‘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는 책을 버리면서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닐는지.



교환독서란 책 여백에 자신의 감상이나 생각을 메모로 남긴 뒤 이를 다른 사람과 바꿔 읽거나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읽으며 기록을 쌓아가는 독서 방식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1020세대를 중심으로 교환독서가 각광받고 있다. 독서 모임을 만들어 교환독서를 하기도 하고 이곳처럼 독자의 메모가 담긴 책을 공유하거나 교환독서를 장려하는 공간이 마련된 곳을 찾기도 한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박윤수(경성대 예과·서울대 문리대 48)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이 지난 4월, 향년 96세로 뉴욕에서 별세하셨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면 97번째 생신을 맞으실 분이였다.

그런데 장례식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이상하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혹시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연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그러나 얼마 전 큰딸 지니가 보내온 글을 읽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회장님은 생전에 자신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증하기로 뜻을 정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일반적인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던 것이다.

시신기증을 영어로는 ‘Willed Body’라고 한다. 자신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자발적 의지’로 기증한다는 숭고한 뜻을 담은 표현이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박 회장님에게 참으로 잘 어울리는 마지막 모습이였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오신 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삶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와 맞닿아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전쟁을 모두 지나온 세대였다. 전공은 물리학이었다. 처음에는 핵물



리학을 공부했지만 살상무기 연구에는 뜻이 없었다. 결국 반도체와 고체물리학 분야로 연구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

갈륨비소(GaAs)와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서울대 연구실에 실험용 샘플을 보내는 등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꾸준히 도왔다.

큰딸 지니는 이메일에서 “우리는 아빠의 논문을 읽고 교정을 보면서 갈륨비소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직접 만든 작은 노란색 반

도체가 깜빡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딸이 전한 아버지의 평생 좌우명은 이랬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가 평생 존경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했다.

박 회장님에게 과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시 나누는 일이었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 배들을 자신의 집과 연구실로 불러들여 연구를 돕고 격려했다.

1991년에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며 미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동문들을 하나로 묶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86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남가주의 은퇴마을인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한인문인협회를 만들고 계간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평생을 물리학자로 살아온 과학자가 노년에 시인이 된 것이다.

그가 남긴 시 가운데 ‘두 사람(Two People)’이라는 시가 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다.

“두 사람이 바람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모든 고통과 번뇌를 내려놓고/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함께 걸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묻는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시를 읽고 있으면 박 회장님의 마지막 길이 조금은 다르게 보인다.

아마 그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걸었던 길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배움과 희망을 남기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길에 자신의 몸까지 내놓았다. 생각할수록 고귀한 선택이다.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긴 ‘나눔’이었는지도 모른다.

지식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후학을 아끼고, 동문들을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내놓았다.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사람들에게 주는 값진 선물이다. 오롯이 과학자로 살아온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평생 무언가를 세상에 남기고 떠난 사람. 이제 달빛이 흐르는 그 길을 편안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회장님이 평생 세상에 나누어 주신 작은 빛들이 오래도록 우리 곁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노벨상 배출하는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길”

서울대 개교 80주년 동문 설문조사

학문 경쟁력·공동체에 대한 책임 강조

“세계 명문대학 10위권에 진입하고 노벨 과학상이 나올 수 있는 대학이 되길바랍니다.” 서민정(국악95)·김용웅(약학86) 동문 등 여러 동문들이 개교 100주년의 서울대에 건넨 기대다. 서울대 총동창신문은 서울대 개교 80주년을 맞아 1959학년부터 2021학번까

지 동문 75명에게 ①기억 속 서울대, ②가장 의미 있는 변화, ③고쳐야 할 점, ④100주년의모습 등을 물었다. 동문들은 동승동의 라일락 향기와 공릉동의 황량한 교정, 관악의 넓은 잔디밭을 떠올렸다.

1970~80년대 학번들의 기억에는 청

춘의 낭만과 함께 민주화운동, 휴강과 최루탄의 흔적도 짙게 남아 있었다. 서울대 80년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는 30명이 관악캠퍼스 이전과 단과대학 통합을 꼽았다.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든 동문은 8명이었다.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변화, 연구 경쟁력 향상, 융합 연구와 교육환경의 디지털화 등도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동문들은 국내 1위에 안주하지 말고 기초학문과 독창적 연구, 교수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

계의 인재가 찾아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학, 창의적인 연구자가 성장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문들이 바란 것은 순위만 높은 대학이 아니었다.

지식과 함께 인성과 윤리의식을 가르치고, 개인의 성공보다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이었다.

세계적 학문 경쟁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학. 그것이 동문들이 그린 서울대의 새로운 100년이였다.



1975년 10월 서울대 관악 캠퍼스 전경(왼쪽)과 2024년 촬영한 관악 캠퍼스 전경. 1975년 당시 68개 동이었던 건물은 2024년 230개 동 건물로 늘었다.

“질문 만드는 대학 돼야 세계 인재들 몰려들 것”

‘서울대 80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관악캠퍼스 이전과 단과대학 통합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모두 30명이 캠퍼스 이전·통합 또는 농과대학의 관악 이전을 들었다. 김만식(공업교육69) 동문은 과거에는 단과대학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입학식과 졸업식 외에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고, 같은 서울대 학생끼리도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대학이 한곳에 결집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학교라는 자부심을 뒤흔게나마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유명한 동문은 관악 이전을 “서울대라는 흩어진 관념이 하나의 덩어리로 체현된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외형적 성장도 여러 답변에 등장했다.

동문들은 숲과 빈터가 많던 캠퍼스에 연구동과 교육시설이 들어서고,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연구·학습 기반이 확충된 점을 들었다. 관정도서관 건립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 꼽은 답변도 있었다. 반면 건물이 지나치게 늘어 캠퍼스의 낭만과 야외 공간이 줄고, 교정의 전체적인 조화가 부족해졌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은 동문은 8명이었다.

법인화를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환점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법인화 이후에도 관료적인 조직문화와 폐쇄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 연구 경쟁력 향상, 융합 연구 활성화와 교육 환경의 디지털 혁신도 주요 변화로 거론됐다.

모든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일부 동문은 의미 있는 변화를 선택 못했는지 어렵다고 답했고, 국내외 다른 대학의 빠른 성장에 비해 서울대의 변화가 더디다고 비판했다.

외형은 커졌지만 서울대만의 비전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1위에 안주해선 안 돼”

지금의 서울대가 놓치고 있거나 고쳐야 할 점을 묻자 학문과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두드러졌다.

김광용 동문은 서울대가 여전히 국내 평판 1위에 안주해 “학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명(축산75) 동문은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비해 서울대의 학문적 국제 경쟁력이 미흡하다며 진정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우종구(농공81) 동문은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뛰어난 인재로 성장시키는 교육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중원(의학77) 동문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범해지면 안 된다”며 “우수한 학생이 더욱 뛰어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진의 역량 강화와 충분한 예우, 도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평가·지원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식보다 앞서 책임과 품격을

연구 경쟁력 못지않게 반복된 화두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이었다. 여러 동문은 서울대가 우수한 인재를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만을 좇는 직업인으로 길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효승 동문은 서울대가 대한민국 최상층 기득권의 공급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세계를 아우르는 자기 성찰이 가능한 지식인을 길러 달라고 했다.

김규태(물리88) 동문도 사회적 책무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인식하고, 겸손한 시선과 진취적인 도전을 함께 갖춘 인재를 강조했다. 이조영 동문은 “사회 여러 분야의 도움을 받는 대학

으로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100년 선도하는 열린 대학

개교 100주년의 서울대를 묻는 마지막 질문에서 32명은 ‘세계’ 또는 ‘글로벌’을 직접 언급했다.

세계 1위·5위·10위권 진입을 비롯해 세계 우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 세계의 인재가 배우러 오는 대학, 해외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기대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학문 공동체로 도약해야 한다는 지향점은 같았다. 노벨 과학상과 세계적 석학의 배출은 동문들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고운미 동문은 노벨상 수상자를 5명 이상 배출하는 대학을, 김인용 동문은 노벨상 수상자가 여럿 나오는 세계적 권위의 대학을 꼽았다.

그러나 동문들이 바란 것은 수상 실적이나 대학 순위 자체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쫓으면서도 오랫동안 축적한 연구자료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세계적인 성과를 만드는 대학, 한 분야에서라도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학문적 성취를 쌓는 대학을 기대했다.

김남주 기자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362,304 (as of 8.30.2026)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故고광선 (공57)
뉴욕-조상근 (법69)
필라델피아-신익석 (공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남가주-김일영 (의65)
조지아-주중광 (약60)
조지아-허지영 (문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68)
남가주-김보연 (간63)
남가주-김용재 (의60)
남가주-노명호 (공61)
남가주-박종수 (수의58)
남가주-박창규 (약59)
남가주-서동영 (사60)
남가주-서치원 (공69)
남가주-성낙호 (치63)
남가주-심학섭 (약61)
남가주-이기준 (법54)
남가주-이병준 (상55)
남가주-이흥표 (의58)
남가주-벤자민홍 (문53)
남가주-하기환 (공66)
남가주-한귀희 (미68)
남가주-한홍택 (공60)
남가주-홍수웅 (의59)
남가주-홍훈정 (음70)
남가주-정상진 (상59)
뉴욕-강에드워드 (사60)
뉴욕-오인석 (법58)
뉴욕-이정자 (간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69)
미시간-박용화 (의58)
북가주-강재호 (상57)

북가주-김정희 (음56)
북가주-민병곤 (공65)
북가주-전혜경 (문67)
샌디에고-유현주 (문65)
샌디에고-이면기 (공64)
샌디에고-진성호 (공64)
시카고-이용락 (공48)
시카고-조규승 (문72)
워싱턴주-김재훈 (공72)
워싱턴DC-이태영 (법60)
조지아-김현희 (간59)
커네티컷-김창수 (의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55)
필라델피아-손재옥 (가정77)
필라델피아-신성식 (공56)
필라델피아-이만택 (의52)
하트랜드-이상강 (의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59)
남가주-故김병연 (공68)
남가주-故이종도 (공66)
남가주-권봉성 (문64)
남가주-김수영 (사57)
남가주-박인창 (농65)
남가주-이종묘 (간69)
남가주-이호진 (간74)
남가주-정임현 (간72)
남가주-정재훈 (공64)
남가주-조용원 (문66)
남가주-홍성선 (약72)
뉴욕-김현중 (공63)
미네소타-황효숙 (사65)
북가주-박순희 (의60)
북가주-남광순 (음64)
북가주-차재철 (의62)
북텍사스-강영빈 (문58)
북텍사스-이승화 (공03)
워싱턴DC-남옥현 (경영84)
워싱턴DC-배성호 (의65)
워싱턴DC-최재귀 (미63)
조지아-김경숙 (사64)
조지아-김태형 (의57)

조지아-임수암 (공62)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58)
故박명근 (상63)
故박윤수 (문48)
故서영석 (의55)
故오재인 (치33)
故윤낙승 (의60)
故오홍조 (치56)
강신용 (사73)
곽용길 (문59)
권기홍 (의60)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대중 (의70)
김동훈 (의71)
김보연 (간63)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빈 (공66)
김홍묵 (문60)
나두섭 (의66)
나용화 (생과79)
류재풍 (법60)
박용필 (문66)
박원준 (공53)
방명진 (공73)
백길영 (의58)
백만일 (공64)
신건호 (법53)
신경자 (사60)
신영찬 (의63)
심상은 (상54)
안병일 (의63)
이근원 (공67)
이명선 (상58)
이성숙 (공56)
이세열 (사57)
이승훈 (상74)
이채진 (문55)

이청광 (상61)
임낙균 (약64)
임용오 (의57)
전경배 (의69)
전희택 (의58)
정희영 (의64)
정희영 (치58)
정동구 (공57)
정철룡 (의61)
제영혜 (가정71)
조한원 (의57)
차민영 (의76)
차중환 (사54)
한효동 (공58)
홍종화 (약74)
황해룡 (공52)

뉴욕

故김광호 (문62)
故한창섭 (문57)
故김종률 (사51)
고애자 (음57)
권영국 (상60)
김승호 (공71)
김영용 (치55)
김한중 (의56)
김해임 (의52)
배정희 (사54)
서영숙 (간67)
석창호 (의66)
손병우 (문69)
손진태 (약67)
신응남 (농70)
오홍호 (의66)
윤인숙 (간63)
윤종숙 (약66)
이강홍 (상60)
이기영 (농70)
이대영 (문64)
이영재 (상58)
이재덕 (법60)
이재량 (상61)
이전구 (농60)
이준행 (공48)
이태호 (상58)

조대일 (사53)
최수용 (상55)
최영태 (문67)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추재옥 (의57)
한태진 (의58)
허선행 (의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69)
故박경민 (의53)
김광수 (문73)
고종성 (사75)
김문소 (수의61)
김용구 (공66)
오세경 (약61)
윤선홍 (치64)
이의인 (공68)
전신의 (문57)
정정옥 (의60)
정태영 (문71)
조만연 (상58)
홍지복 (간7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김태환 (의58)
남세현 (공67)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변우진 (문81)
송창원 (문53)
조형준 (문62)

미시간

故남상용 (공52)
故정태 (의57)
장병진 (공61)

북가주

박종성 (법53)
박진영 (공66)
손석보 (공68)
윤정옥 (약50)

최경선 (농65)
한만섭 (공49)
황동하 (의65)

샌디에고
임천빈 (문61)

시카고

故이윤모 (농57)
故강영국 (수의67)
故최희필 (의53)
소진문 (치58)
심상구 (상63)
윤봉수 (간69)
이재희 (치67)
장윤일 (공60)
조봉완 (법53)
한재은 (의59)

알래스카

윤제중 (농55)

오레곤
김상순 (상67)
박희진 (농78)
이은상 (상5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66)
이지우 (의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53)
이명자 (간74)
이희백 (의55)
임현민 (공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43)
故서휘열 (의57)
강연식 (사58)
공순옥 (간66)
권기현 (사53)
민흥기 (문61)
박평일 (농69)

오인환 (문63)
이내원 (사58)
이선구 (문65)
이윤주 (상63)
최지원 (의61)

조지아

김용건 (문48)
석호태 (공8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텍사스

박태우 (공64)
이광연 (공60)
조시호 (문59)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임필순 (의54)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55)
김현영 (수의58)
서종민 (공64)
주기목 (수의68)
최종무 (상63)

하와이

故최경윤 (사51)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62)
김시근 (공72)
배규영 (사68)
오명순 (가정69)
이교락 (의53)

휴스턴

박진섭 (의67)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동문님의 '기부'가 미주동창회를 만듭니다.

함께 해주신 동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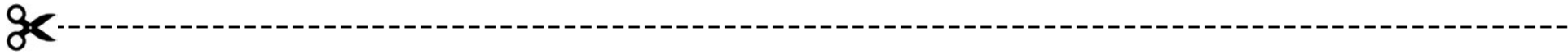


*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고윤석 (공62) 김경숙 (가정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동산 (법59) 김동석 (음64) 김명숙 (농58)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찬 (문65) 김성환 (의65) 김성호 (법64) 김수영 (사57) 김자성 (의79) 김재영 (공62) 김정복 (사55) 김종표 (법58) 김준식 (상75)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영중 (치66) 김옥경 (사60) 김원탁 (공65) 김태기 (의62) 김택수 (의57) 김태환 (의58) 나승욱 (문59) 나용화 (생과79) 노명호 (공61) 문봉길 (문61) 박시영 (사63)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자경 (사60) 박중수 (수의58) 박호현 (의52) 박호현 (의52) 백혜란 (미70)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선우원근 (공66) 성낙호 (치63) 손학식 (공61) 송명국 (인문8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신동국 (수의76) 신영찬 (의63)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강호 (치65) 이방기 (농59) 이법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소현 (공15) 이수인 (미95) 이연숙 (간76) 이영신 (간77) 이용한 (공64) 이원익 (문73)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재권 (법56) 이창신 (법57) 이채진 (문55) 이호진 (간74) 이흥표 (의58) 임동규 (미57) 임창희 (공73) 장동석 (문66) 장문섭 (공69) 장소현 (미65) 장원경 (미73) 장윤희 (사54) 장인숙 (간70)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연우 (사20) 정연웅 (상63) 정예현 (상63) 정 황 (공64) 조동철 (사68)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채규환 (법69) 천동우 (공63) 최영순 (간69) 한귀희 (미68) 한정현 (치55) 한홍택 (공60) 한효동 (공58) 함송욱 (간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홍성선 (약72) 홍성애 (간60) 황건홍 (공55) 황현상 (의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순정 (간69) 고애자 (음57) 권문웅 (미61) 권영국 (상60) 권영대 (공69) 권정덕 (의58) 금영천 (약72) 김광현 (미57) 김문경 (약61)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유현 (의59)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정희 (약56) 김종원 (사58) 김현중 (공63)	남상래 (간66) 리준무 (음65)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승화 (간69) 박은규 (약72) 박제순 (인문82) 방준재 (의63) 배상규 (약61)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서의원 (공66)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성기로 (약57) 손갑수 (약59) 손진태 (약67) 송기인 (의60) 송용섭 (농63) 송용길 (대학원69) 신응남 (농70) 안태홍 (상65) 양경호 (공83)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우규환 (사60) 유재섭 (공65) 유은희 (간71) 유호근 (문71) 윤영섭 (의57) 이강욱 (공70) 이경림 (상64) 이대영 (문64)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영희 (미68) 이용대 (약63)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충호 (의63) 이태안 (의61) 이흥우 (공50) 정동성 (상58)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함종금 (간66) 허영자 (약63) 하륜 (법02) Yong Auh (의66) 뉴잉글랜드 김경일 (농58) 김선혁 (약59) 김문소 (수의61) 김옥동 (사58) 김형범 (문57) 박중건 (의56)	박중승 (의56) 박지용 (경13) 송미자 (농62) 신정윤 (공60)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이규진 (약60) 이금하 (문69) 임국희 (사92) 임영호 (공72) 한서동 (의61) 현건섭 (공55) 황민영 (공17) 룩키마운틴스 임현재 (의59) 미네소타 경홍준 (공19) 김권식 (공61)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성욱진 (치87) 손창수 (경영86) 임동근 (농14) 주한수 (수의62) 황호숙 (사65) 미시간 오동환 (의65) 이성길 (의65) 조병권 (공64)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현 (공64) 한영신 (생과86) 북가주 강성우 (공02) 강재호 (상57) 고범규 (공07) 고우중 (공04) 권구형 (공98) 권석주 (공08) 권지혜 (미05) 권혁민 (공01) 권현오 (사13) 김갑균 (공60) 김교연 (문72) 김권규 (공14) 김규범 (경영07) 김기오 (물96) 김동건 (공10) 김소연 (공96) 김수현 (공14) 김아린 (사회16) 김예린 (공07) 김재환 (공98) 김정운 (간90) 김중현 (공60) 김지수 (경영11) 김푸른 (공15) 김현왕 (공64) 김호준 (공19) 남형욱 (자유12) 노경실 (외08) 노은지 (공07) 도연희 (생과93)	민병곤 (공65) 박서규 (법56) 박은정 (공04) 박정규 (간76) 박정욱 (미96) 백경민 (공15) 부영무 (치72) 서유리 (음06) 서혜순 (인05) 성은지 (인13) 손성호 (인지10) 손창순 (공69) 송수연 (간08) 송승환 (공98) 송현영 (공99) 신규영 (공64) 신범준 (공11) 신평터 (공98) 안성호 (인99) 안호삼 (문58) 연평우 (공03) 오택호 (공93) 온기철 (의65) 위창호 (의67) 유호준 (공10) 윤성희 (사58) 유재훈 (화88) 이가영 (공15) 이동희 (경영07) 이상민 (사회13) 이상현 (자11) 이수미 (공18) 이승훈 (경영01) 이정남 (공63) 이정현 (서양사96) 이지수 (공94) 임승래 (문66) 임정란 (음76) 임지현 (공96) 전병련 (공54) 정영주 (공00) 정지선 (상58) 정춘임 (간67) 정한규 (의63) 정현준 (공04) 조성문 (공96) 지대형 (경영07) 최경선 (농65) 최종훈 (공93) 최진경 (영12) 최홍규 (자전13) 추교진 (공03) 하성주 (공04) 한기용 (공89) 한상봉 (수의67) 한주연 (영13)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황지성 (공11)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이석호 (농78) 최희기 (공61)	샌디에고 김인철 (약70) 오계환 (공64) 이문상 (공62) 임춘수 (의57) 시카고 국경환 (경영12) 김동희 (공66)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승주 (간69) 김정수 (문69) 김용주 (공69) 김용환 (공71) 김정수 (문69) 김현주 (문61) 노영일 (의62) 민영기 (공65) 박창용 (공87) 백운기 (문56) 서상현 (의65) 소진문 (치58) 신석균 (문54) 심상구 (상64) 윤경순 (사61) 윤덕상 (치62) 윤봉수 (간69) 이건정 (공69) 이경미 (미69) 이덕수 (문58) 이동균 (공75) 이영우 (문66) 이용수 (약51) 이재희 (치67)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정성일 (공86) 조규승 (문72) 조대현 (공57) 최희수 (문67) 한익일 (공62) 한재은 (의59) 홍 건 (의64) 홍승우 (사회87) 홍정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박희진 (농78) 한국남 (공57)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워싱턴주 김인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안승적 (농59) 유성열 (공대72)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정관 (농83) 이화백 (의55) 정영자 (사60) 최두환 (공83)	최준한 (농58)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김부근 (의52) 김준수 (공07) 김응환 (치88) 김해식 (공59) 김희주 (의62) 나연수 (사54) 남옥현 (경영84) 남춘일 (사69) 박상근 (법75) 박성희 (환경계획20) 박인영 (의69)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배성호 (의65) 백용현 (공64) 변광록 (간72)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안민영 (경영0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원종민 (약57) 이내원 (사58) 이민석 (공89) 이선구 (문65) 이성배 (수의57) 이승재 (공15) 이연주 (치88) 이종국 (의52)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 상 (약83) 정원자 (농62) 정평희 (공71) 최대용 (의73)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송용덕 (의5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종진 (의63) 한성수 (의54) 한영신 (가86)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캘리포니아 이중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김 현 (문93) 서갑식 (공70) 텍사스 배성렬 (화10) 이승화 (공03) 이태균 (공16) 천양국 (의63) 황명규 (공61)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이민우 (의61) 필라델피아 강준철 (사59) 고병은 (문55) 고석규 (치65) 김국찬 (치64) 김순주 (치95)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종민 (공64) 손재욱 (가정77) 신선자 (사60) 신성식 (공56) 신영석 (공76) 안세현 (의62)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이성숙 (가정74) 전방남 (상73) 정덕훈 (상63) 정홍택 (상61) 주기목 (수의68) 지흥민 (수의61) 조화연 (음64) 최종무 (상63) 최현태 (문62) 한동희 (문57) 하들랜드 구명순 (간66) 심정희 (음86) 오택요 (의56) 윌리엄슨주희 (음89) 이주현 (미92) 정민재 (농70) 하와이 김용수 (농75) 안은식 (문55) 이재형 (수의61) 휴스턴 류유미 (약62) 박태우 (공64) 박석규 (간59) 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최성호 (문58) 하재청 (문67)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2025.7.1~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기형 (상75) 600 김상순 (상67) 300 김성환 (의65) 200 김영배 (미61) 200 김정상 (경제91) 300 김종표 (법58) 200 박종수 (수의58) 3,000 송명구 (인문81) 100 신영찬 (의63) 200 양은석 (음70) 200 윤석철 (상60) 2,000 이범식 (공61) 200 이병준 (상55) 10,000 정예현 (상63) 200 정연웅 (상63) 200 정임희 (간72) 1,000 한귀희 (미68) 2,000 황건홍 (공55) 200 황현상 (의55) 200 익명요청 1,00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700 리준무 (음65) 500 선종칠 (의57) 200 신웅(농70) 4,728.50 조남천 (사59) 300 뉴잉글랜드 오세경 (약61) 3,000 윤상래 (수의62) 1,000 정선주/박영철 (간68, 농64) 5,000 미네소타 강순균 (문57) 1,000 김관식 (공61) 41,000 이희윤 (농84) 100 황효숙 (사65) 4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공54, 56) 1,000 오동환 (의65) 400 북가주 황만익 (사59)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시카고 조규승 (문리72) 1,000 이용수 (약51) 250 서상헌 (의65) 100 장윤일 (공60) 100 최희수 (문67) 100 오레곤 박희진 (농78) 200 오하이오 故정운행 (문53) 500 조지아 故김종구 (수의73) 100,000 성성모 (사67) 200 송용덕 (의57) 200 이종석 (의54) 100 한성수 (의54) 200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500 권철수 (의68) 500 박상근 (법75) 1,000 박평일 (농69) 1000 서윤석 (의62) 200 정평희 (공71) 200	캐롤라이나 조철영 (의68) 200 테네시 김경덕 (공75) 100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1,000 이성숙 (가정74) 3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SNUAA EDGE 후원 미주 총동창회 10,000 서울대 총동창회 2,000 남가주지부 1,000 뉴욕지부 2,600 북가주지부 500 미네소타지부 500 고국화/고광국(공56) 미시간 1,000 김해암 (의52) 뉴욕 3,000 조성문 (공96) 북가주 2,900 권혁민 (공01) 북가주 50 Moloco 3,000 SAEFARM 1,000 장학후원금 남가주 김중섭 (문66) 10,000 김홍목 (문60) 300 노명호 (공61) 10,000 박원준 (공53) 500	한홍택/백훈(공60, 미61) 10,000 황현상 (의55) 100 미네소타 김관식 (공61) 10,000 황효숙 (사65) 1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 (공54, 공56) 200,000 북가주 신규영 (공64) 북가주 300 워싱턴 DC 이경애 (문58) 10,000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5,0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200 커네티컷 지부 후원 故유시영(문68) 10,000 Brain Network 후원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50 김영도 (공67) 250 김자성 (의79) 500 김원탁 (공65) 480 김한신 (서양사92) 500	김홍일 (치62) 250 독고량/서정화(음80) 250 박상호 (의65) 250 배재현 (공75) 500 서동영 (사60) 980 송미선 (음89) 500 신정식 (상64) 500 양은석 (음70) 125 이명선 (상58) 1,000 이병준 (상55) 1,000 이상대 (농80) 250 이승훈 (상74) 1,000 이종모 (간호69) 480 이찬용 (치72) 500 이현림 (음81) 500 정균희 (의64) 1,000 최운화 (상78) 250 하기환 (공66) 1,000 하선호 (치81) 250 한태호 (문75) 500 Duo America 300 남가주 대학원동문회 1,000 아주여행사 500 SNU Foundation 6,000 OB 산악회 1,000 Korean Dance Institute 125 SNU 공대 500 북가주 이경희 (인문83) 500 뉴욕 석창호 (의66) 240 신웅남 (농70) 500 미네소타 황효숙 (사65) 1,000	시카고 조규승 (문리72) 1,240 워싱턴 DC 남옥현 (경영84) 1,000 정세근 (자연82) 500 Wealthy & Wise 3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480 지부분담금 남가주 3,00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로키마운틴 200 미네소타 550 미시간 300 북가주 1300 북텍사스 550 샌디에고 550 시카고 2,400 애리조나 200 일래스카 오레곤 오하이오 300 유타 워싱턴DC 2,000 워싱턴주 800 조지아 800 중부텍사스 캐롤라이나 200 커네티컷 300 테네시 필라델피아 1,000 플로리다 300 하트랜드 550 하와이 휴스턴 550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 \$ 200 ☐ \$ 500 ☐ \$ 1,000 ☐ \$_____	☐ \$100 (7/2025~6/2026, 1년) ☐ \$100 (7/2026~6/2027, 1년) ☐ \$200 (7/2025~6/2027, 2년)	☐ \$ 3,000 ☐ \$ 5,000 실버 ☐ \$10,000 골드 ☐ \$50,000 플래티넘 ☐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 Full Size \$1,000 ☐ 1/2 Size \$ 500 ☐ 1/3 Size \$ 300 ☐ 1/4 Size \$ 250 ☐ 웹사이트(1년) \$ 500		☐ SNUAA 장학후원 ☐ Charity Fund (나눔) ☐ Brain Network ☐ 모교 발전기금 ☐ SNUAA EDGE 후원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이메일				전화번호	
		현주소					
업소록 광고비		업소명					
☐ \$240 (2026/7~2027/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업소 주소				업소 전화번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FINANCIAL ADVISORY SERVICES

Advanced Financial Clarity



이태영 박사(법학과60),
경영&경제학박사(Indiana대학교), 웰씨앤와이즈 설립자/상임고문
박상우 대표이사(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대표



Your wealth, Your future, Our strategy.

SERVICES

글로벌 투자전략

한·미 자산 이전

상속 및 세무계획

은퇴자산 관리

세대별 자산관리

신탁 설립 운용

 COLUMBIA OFFICE
10320 Little Patuxent Pkwy, Suite 930, Columbia, MD 21044, USA

 SEOUL OFFICE
#201, 111 Yeouigongwon-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Scan For More



 410-469-9532

info@investedadvisory.com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Noblese Oblige

따뜻한 나눔으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 재난 및 긴급 구호

| 지역사회 봉사

|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

| 기타 공익성이 인정되는사업

CARE

따뜻한 배려

COMMUNITY

함께하는 공동체

CONNECTION

이어지는 나눔



나눔으로 이어지는
미주동창회

Hand illustrations by Storyset

CONTACT

회장 황호숙
651-308-0796 | sook@nano-dyne.com

나눔 위원장 이성숙
610-417-4789 | susyhong19@gmail.com

업소록 광고		
남가주 CA		
부동산 : Team Spirit Realty 이종묘(간호대69), Jennie Lee T: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jenniecllee@gmail.com	기계 기술 전자 :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65) O: 818-514-6780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자동차 서비스 :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뉴욕 NY.NJ	필라델피아 PA	시카고 CHI
의료 병원 :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건축 : THA Consulting, Inc. 손재옥(가정대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주방 가전 : Magic Chef 조규승(문리대72) T: 630-238-0600 940N. Central Avenue, Wood Dale, IL 60191 salessupport@magicchef.com www.magicchef.com



학생의 오늘, 서울대학교의 내일을 함께 응원하는 기부3관왕입니다.

매월 만원의 참여는 **만만한 기부**가 되어 큰 힘을 만들고,
반짝이는 응원은 **샤인 기부**가 되어 서울대를 밝히고,
따뜻한 한 끼의 마음은 **천원의 식사**가 되어 학생의 하루를 채웁니다.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 성함 는 기부액 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나의 참여현황을 확인하고
기부3관왕을 완성해보세요.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OFFICE 400 Kelby Street, Suite 1803, Fort Lee, NJ 07024 (Parker Plaza) TEL +1-212-768-9144 EMAIL michelle@klopagroup.com
LA OFFICE 1148 W Valley View Dr. Fullerton CA 92834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